

전교조 교육실태 자료집

2006. 2.

■ ■ ■ 목 차 ■ ■ ■

- 이것이 전교조다!! / 1
- 우리나라 현재 교육, 이대로 좋은가? / 43
- 전교조 급진 좌파적 이념 문제의 심각성 / 71
-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전교조 / 99
- 전교조 교사들의 비교육적 사례 / 107
- 전교조에 告함 / 119
- 부록1 : 전교조의 편향적 교육 지침 및 내용 / 153
부록2 : 온라인을 통해 본 전교조 문제 / 162
부록3 : 언론사에 게재된 전교조 문제 / 183
부록4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교조 고발 사례 / 208
부록5 : 전교조 교육 실태에 관한 그림 자료 / 227

여백

이것이 전교조다!!

조 남 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이것이 전교조다

조남현(자유시민연대 대변인)

I. 전교조의 반교육적·반사회적 행태 고발

1. 전교조의 선동으로 교장선생님을 뚫은 제자들의 패륜

전교조가 출범하기 한 해 전인 지난 88년, 경기도 여주 소재 여주 상고에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평교협)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요사태가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이 학교에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평교협은 처음 법인 측에 평교협 인정과 박 모 교사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모 교사는 평교협 결성을 주도한 인물. 하지만 평교협 자체가 불법단체인데다가 박 모 교사는 해직교사가 아니라 의원면직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평교협은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고 온갖 유언비어, 혀위사실 등을 유포, 학생소요를 일으켰다.

평교협은 자의적으로 정관(안)을 마련하여 그걸 승인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명실상부한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교장, 교감을 교무회의서 선출하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회도 교무회의의 선출로 구성, 교무회의가 교사의 임명과 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등이었다.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권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얘기다. 평교협은 심지어 법인의 이사회와 육성회, 어머니회까지 평교협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며 생떼를 쓰기도 했다.

한 평교협 교사는 학교장이 평교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무실에서 “학교장도 똥물에 튀길 놈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대기도 했다. 그는 국민윤리 담당 교사였다.

해가 바뀌어 89년이 되었지만 여주상고는 여전히 소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학원소요로 신경이 쇠약해진 이 학교 윤 모 교장이 89년 2월, 그러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사직하며 “평교협이 있는 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후임 서 모 교장이 취임했다. 평교협은 그들이 직선한 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임식에 불참했는가 하면 학교장의 모든 지시를 거부하고 그들이 학급담임을 모두 맡는다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평교협은 밤마다 음악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손뼉치고 노래 부르며 밤을 지새웠다.

평교협의 모 여교사는 여학생이 결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술집접대부나 되라”며 구타하여 전치 3주의 고막천공상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항의하는 부모에게 “마음대로 하라” “애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건 말건 내 알바 아니다”라고 말해 분노를 샀고, 평교협에서 탈퇴한 최 모, 탁 모

등 남자교사에게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웃옷을 벗어 제치고 주먹질을 하며 “최XX 개새끼, 탁XX 개새끼의 부모가 불쌍하다”고 외치며 학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한창이던 89년 봄 교장이 팀 스피리트 훈련에 협조를 요청하자 그는 “양키고 훔!”을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평교협 교사들은 “미국놈들은 무식하고 잔인한 놈들이며, 여자만 보면 유부녀라도 닥치는대로 겁탈하는 놈들이라 협조할 수 없다” “전에도 이천에서 여학생을 미국 수명이 잔인하게 겁탈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학생들을 선동했다. 뿐 아니라 “미국놈들은 우리의 밀농사, 보리농사, 다 빼앗아 가고 쌀농사마저 빼앗아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한다” “북한은 소련을 통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으나 같은 동포를 살생하지 않기 위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 미국놈들은 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과 국토를 황폐화시키려고 한다”는 등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는 데 혈안이 되었다.

평교협은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 안팎을 돌아다니며 차고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수위실, 강당피아노, 교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난동을 부리게 했다. 학생들은 심지어 학교장의 승용차 타이어에 못질까지 해댔다. 평교협 교사들은 이를 유유히 바라보며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비호하는가 하면 오히려 부추겼다. 설립자를 화형식하고 이를 뒤 삼오제까지 지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평교협 교사들은 교장의 저지에도 아랑곳없이 학생들을 이끌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설립자가 근무하는 건국대에 몰려가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였고, 밤이면 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반교육적인 작태를 연출했다.

평교협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법인사무실의 점거농성을 시도하다가 저지되자 설립자의 집으로 몰려가 소동을 벌였다. 설립자 가족은 이를 견디다 못해 모두 집을 비우고 피신해야 했다. 뿐 아니라 활동비 조달을 위해 학생들에게 모금함을 메고 하고 서울거리에서 모금운동을 벌이도록 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89년 4월 성행이 불량한 여교사의 징계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평교협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며 학생들을 선동했다. 흥분한 학생들은 교장실에 난입, 교장을 폭행하는 끔찍한 패륜을 저질러 큰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은 교장을 전기줄로 기둥에 묶어 놓고는 “갈비뼈가 부러져야 하겠느냐”고 몽둥이로 협박하며 설립자의 주소를 대라고 다그쳤다. 훗날 이 교장은 “재단퇴진을 요구하며 설립자의 주소를 대라는데 거부하자 40여명의 학생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 부르며 학생회장 등 3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묶는데 꼼짝없이 당했다”고 그 날의 악몽을 되살리며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고 몸서리를 쳤다. 이 학교 설립자는 지금도 “나는 죄가 많아 학교를 설립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이런 풍토에서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학교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2. 교장 선생님의 죽음

2003년 4월4일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선생님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보성초등학교 모 기간제 여교사가 2003년 3월18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장 교감의 ‘일상적인 차 대접’ 요구를 거절하자 괴롭힘을 당한

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여교사는 이를 후인 20일 일지를 쓰듯 보다 상세한 내용의 글을 다시 교육부와 충남 교육청, 여성부와 노동부, 예산군청, 전교조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서 교장은 진 교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화 하는가 하면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를 요구받는 등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다가, 급기야 4월4일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서 교장이 남긴 메모에는 토요일인 3월22일 오전 11시30분 경 전교조 충남 지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교조가 대단히 고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법정에 가서 하라. 양심에 가책은 없느냐. 왜 잘 다니는 사람 그만두도록 강요했느냐. 우리가 갈 것이라는 등 공갈 협박』

이 메모는 전교조의 위세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위세와 고압적인 태도야말로 서 교장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또 교육자로서 살아 온 외길 인생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 힘으로 빼앗은 인사권

서울의 Y학원은 3개 학교를 거느린 기독교계 재단으로 모범적인 사학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학교가 분규를 겪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전교조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학교 측에 이른바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교사들의 선출케 하자는 것. 이는 사실상 재단 이사회로부터 인사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이에 전교조는 교내 시위는 물론, 이사장 집 앞과 교육청 등에서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마치 학교에 무슨 비리와 부패가 있는 것인 양 예·결산을 공개하라며 학교 측을 압박해 갔다. 이렇게 되면 재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물론 졸업생들까지 뭔가 비리가 있어 선생님들이 저렇게 시위까지 나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전교조는 또 학교의 주요 행사, 심지어 입학식과 졸업식을 ‘불모로’ 학교 측을 압박하는 비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교사의 글이다.

- 엄청난 예·결산 자료를 뒤져서 여기에 관련된 인간들 짐작약을 먹고 다니게 할 것이고
- 곧이어 있을 졸업식 입학식에 오신 학부모님들께 학교의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것이다
-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학교의 인사를 거부하여 모두들 가시방석에 앓게 될 것이고
- 업무 거부가 진행되어 학교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을 보면 마치 학교에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교조가 전교조 측 교육위원은 물론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까지 동원하여 이 학교의 예·결산 및 공사 관련 회계 등을 모조리 뒤졌지

만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다음 글 역시 전교조가 학교 측을 압박하는 수단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이 역시 전교조가 교육자의 면모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 법적으로 꼬투리 잡히지 않을 만큼, 그러나 학교의 입장은 매우 괴롭게 될 만큼 기막힐 정도의 환상적인 전술로 진행한다(구체적인 전술은 절대 미리 밝히지 않는다).
- 최대한 많은 숫자를 동원한다.
- 아주 지능적으로 진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 엉망진창으로 집행된 “방과 후 교육비” 문제를 집중 홍보한다.
- 행사장에서 사용할 각종 소품은 졸업식 하루 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각종 소품이 무엇일까요? 졸업식장에 와서 보면 알게 될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오!!)

아주 지능적으로 학교 측을 괴롭혀서 이른바 민주적 인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얘기다. 여기서도 ‘방과 후 교육비’ 문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함으로써 마치 학생들로부터 걷은 방과 후 교육비와 관련하여 무슨 엄청난 비리라도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고 있으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펴뜨린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결국 전교조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교조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분규가 발생하면 이사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한 번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나면 설립자에게 학교 운영권이 되돌아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현실에서 재단 측이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이 학교 사례는 전교조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은 Y 재단의 인사위 규정에 대한 합의 후 이 재단 산하의 한 교장선생님이 쓴 글이다.

▶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글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한탄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 ① 전교조 분회 조직 자체가 불법입니다.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정보교육과 10명이 Y분회라고 했습니다
- ② 분회가 학교당국(세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③ 인사위의 기능과 조직이 사립학교법, 학교정관에 엄연히 명시된 인사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위원을 선출하자는 요구 등 무리한 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장 3개월 10일간의 불법 시위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교직원 출근 전 시간대에 학교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퇴근 시간 후에는 교문 밖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다른 학교의 전교조 선생들과 합동으로 시위를 벌였으며, 어느 때는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방학 내내 교문 앞

에 텐트를 치고 “민주적 인사위 구성” “투명한 예산 공개”등 써 붙이고 학교를 괴롭혔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는 교무실을 점령하고 졸업식을 방해하겠다면서 협서를 쓰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라 처벌하면(이들 자신이 징계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모르는 척하는 세상인데, 처벌 후의 일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000 교육위원의 중재 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시정해 나간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일부 교사들의 건의 사항이라고 간주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단을 무력화 시키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인사위 요구는 표면적인 요구이고 그 뒷면에는 재단의 비리를 들튞내어 비리 사학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7명을 내세워 학교의 5년간의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외부 전교조에 유출시켜 검토시켰을 것입니다. (그들 말로는 회계사를 동원하여 비리를 찾아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이00 의원의 명의로 환특 등 공사관계의 회계장부를 요구받고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해 교육위원들이 직접 감사하도록 하자는 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일로 재단의 비리가 없다는 것은 저절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입은 상처는 회복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예수님, 이 재단을 망하게 해 주세요.”란 글까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학생의 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교문 밖에서 시위를 벌일 때, 다른 학교 전교

조 선생이 했다고는 하지만 “00학원을 박살내자”는 구호도 있었습니다. “이사장을 몰아내자”는 학생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사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았다는지, 공사하면서 업자들이 돈을 요구받았다는 지나가는 소문이라도 있어서 재단을 고발했다면 감사원 감사라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사안도 발생한 것도 없는데도, 그것도 3년마다 감사를 받은 장부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비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기 직장을 고발하는 교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받은 상처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들의 사주를 받아 직접 감사를 하겠다는 교육위원들이 있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탄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행위는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 갈 것입니다. 학생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4. 제자들의 교장선생님 화형식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94년 분규로 이사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재단의 복귀가 결정되었다. 이에 전교조는 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해 불법 학생선동 및 의식화교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마비시켰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조끼를 입고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부패 재단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수업 중에도 전교조 조끼를 입는 등 학생들을 자극했다. 기말고사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업을 폐기하는 대신 94년 사태를 담은 비디오를 틀어 학생들을 의식화시켰다. 심

지어 비전교조 교사가 정상수업을 하려하자 전교조 교사가 쫓아 들어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사태도 있었다.

2000년 7월 3일 교직원 회의에서 전교조 부회장은 교사들에게 “오늘까지 부패 재단 복귀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여교사들의 웃음을 피눈물로 바꾸어 주겠다”는 공갈협박도 했다. 심지어 같은 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훈화 방송시간에 전교조 측 J 교장은 “법이 곧 정의는 아니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각오는 되어 있다.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내용의 훈화를 했다. 물론 이 교장은 전교조의 장악 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더라도 교장이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없고 아직 사리분별이 분명치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의 운운하며 불법까지 강행하겠다는 훈화를 한다는 것은 반교육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법원 판결이 나오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7월 5일, 전교조 교사들의 피켓시위, 홈페이지, 수업시간을 통한 선동으로 급기야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일부 결사대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빨간 머리띠에 몽둥이를 들고 교내를 돌며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다.

홍분한 학생들은 교사의 자동차를 부수고 심지어 교무실에까지 몰려와 선생님들에게 폭언과 야유를 퍼부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교사를 둘러싸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X개라고 부르는 등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전교조 교사들은 방관하거나 심지어 자료로 쓰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했다는 점이다.

1심 판결이 나자 전교조 교사들은 당시 2학년 학생회 임원에게 ‘학교가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선동하면서 ‘3학년 학생회장한테 건의하여 학생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또 다른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모인 학생회에서 ‘학교가 망해가는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선동이다. 그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학생조직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1층 열람실에 전교조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사들의 영정사진을 만들어 두고 침을 뱉으면서 결의를 다지는 패륜을 저질렀다.

2000년 7월 6일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운동장에 모여 C 전교장, 전 이사장, 비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화형식을 했던 것이다. 제자가 스승의 화형식을 한 것이다. 이때 전교조 부회장은 학생들을 말리기는커녕 방송국에서 취재를 올 것이니 촬영을 위해 시간을 조정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5. 교육부가 수집한 사례

▶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농성

- 1999년 10월28일 전교조 위원장 등 20여 명이 교섭위원회 개최 도중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점거·농성
- 2000년 2월23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100여명 신년 교육감 인사차 방문하겠다고 하고서 교육감실 및 교육감 부속실 점거 농성

- 동 지부는 2002년 2월25~28일까지 성추행사건 징계교사의 본인 동의 없는 전보의 시정을 요구하며 북부교육장실 점거
 - 2000년 9월22일~10월7일 전교조 조합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100% 이행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농성
 - 2001년 10월18일~11월9일과 2002년 5월9~30일까지 전교조 울산지부에서는 시교육청을 무단 점거 철야 농성
 - 2002년 5월30일 울산교육청 점거 농성과정 중 초등교육과장실 사무실 집기 파손
 - 2002년 5월28일~현재까지 울산 홍명고 전교조 교사들이 동 학교 교무실을 점거 농성 중
 - 2002년 4월24~26일 전교조 대전 지부는 정책협의회 도중 단체 협약 불이행을 문제 삼아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1층 로비 점거 철야 농성
 - 2002년 5월28~29일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7명이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청 9층 복도 점거 농성
 - 2002년 6월7~11일 전교조 경남지부에서는 단체교섭이 교육청의 무성의로 진척이 없다며 도교육청 점거 농성
- ▶ 장기간 진행되어 온 집회상황(집회신고 기준)
- 전교조 서울 지부는

- 2002년 5월1일~8월1일 70명이 매일 15시~일몰까지 서울교육청 앞에서 인권학원 정상화 결의집회
 - 2002년 5월30일~6월30일 매일 240명이 서울 강서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이행 촉구’ 집회 개최
 - 2002년 4월22일~8월31일 매일 150명이 오전 10시부터 인권학원 정상화 관련 집회를 덕수정보고, 구로여정보산업고 앞, 임시 이사 직장 등에서 실시
 - 2002년 5월13일~8월30일 서울상일초등학교에서는 전교조 조합원 30명이 교장과 다툰 전교조 교사를 고소한 데 반발하여 규탄 집회
 - 2002년 3월25일~9월25일 서울 동일학원 앞에서 전년도 학교 측과 전교조가 합의한 인사청문 등 7개항의 조기이행을 촉구하며 매일 100명이 집회
- 2002년 6월1~15일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150명이 매일 단체협약 이행촉구 집회
- 2002년 6월1~5일 전교조 대구지부 조합원 100명이 단체협약 이행촉구 집회
- 2002년 5월27일~6월27일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10명이 매일 12~19시 경기교육청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선전전 개최
- 2002년 6월5~30일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60명이 교육청 앞에서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철회 촉구집회
- 교육청 현관 앞에 불법천막 설치 농성 및 교육감·부교육감 출근

저지 시도(3회)

- 2002년 11월9일 개최되는 전국체전 식전행사에 학생 동원을 반대하기 위해 전교조 제주지부 조합원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
- 2002년 5월30일~6월29일 경북 청도 이서고에서 교사 2명을 직무태만 등으로 직위해제한데 반발하여 매일 50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교에 몰려와 징계 철회 촉구집회
- 2002년 5월6일~6월5일 경북 안동 경안中에서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한 데 반발하여 부당인사 철회 선전전 집회

▶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해 대립·갈등

- 학교행정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예·결산,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
- 교원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사본, 심사 결과 등 교원성과급 지급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고충심사 등을 청구
- 학습지도보다 학생·학부모 심리를 이용한 인기 전술적 언행에 비중을 두어 전교조 지지 기반세력 확보에 주력
 - 어린이 날, 학생의 날 등에 학생에게 무료 선물 등
- 전교조 개최 각종집회 참여를 위해 무단결근, 연가 또는 조퇴 실시로 수업에 지장 초래
 - 불법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신청 시 학교장이 불허할 경우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주변교사제 폐지·보충수업 폐지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사실상 실시
- 발령받은 학교장의 부임을 거부하는 의사표시 수단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교문 앞 및 시내 광고물 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시
- 검증되지 않은 학교장의 비리의혹이나 학교비방 등을 무책임하게 인터넷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교장의 명예와 교권 침해
-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젊은 교사를 왕따시키는 분위기 조성 및 반강제적 가입을 강요
 - 최근 교대 출신 신임교사 100%가 전교조에 가입하는 실정
- 특정학교의 교내 갈등문제를 다른 학교노조원과 연계하여 집단으로 몰려와 개입하고 시위하는 불법적인 행위 다반사
- 전교조 시·군·구 지회 등에서 단협이행 감시단을 자체 조직하여 학교를 방문, 학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非협조적일 경우 폭언, 위협 및 협박 등을 일삼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에 전교조 교사만 선출시키고 학부모 위원을 친(親)전교조 인사로 선임할 것을 강요
- 학교장의 학습지도안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을 사주하여 학교장의 정당한 지도감독 행위를 방해

- 학교장의 학급담임 배정 등에 항의하기 위해 리본 패용, 대자보 게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무차별 글 올리기
- 단체협약 관련 홍보물과 현수막을 학교장 허가 없이 부착
- 수행평가는 각종 기록을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확인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수행평가 결과 기록물의 결재 및 관찰 내용의 작성을 거부
- 근무시간 중 학교 밖에서 전교조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시·도 지부 등에서 집단으로 항의 방문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탑재
- 근무시간 중 천막을 치고 북을 치면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비교육적 행위
- 매주 1회씩 개최되는 교직원 회의시, 학교장 훈화 중에 전교조 조합원 전원이 집단으로 퇴장
- 교원의 지방직화 반대, 성과상여금 반환 등을 위한 서명행위 등 단체행동

▶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교원노조법

제6조)

- 해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건수가 약 400~500건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고, 해직교원 복직, 교육정책, 교육과정, 기관의 운영 등 교섭대상이 아닌 교육전반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여 노사 갈등을 심화 증폭

– 2002년도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434건

▶ 빈번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 2000년 3월27일~4월22일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공동수업안’을 전교조 총선 대비용으로 발간 보급하여 학생수업에 활용

- 2001년 6~7월 경기 및 충북지역 초·중·고교에서 현직 교육감의 비리혐의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반부패 수업’ 실시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혐의’를 마치 사실처럼 수업자료로 삼았으며, ‘지역 교육의 수장’을 손가락질하도록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교육적 행위를 함

- 2002년 전교조 발행 이적성이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있는 국사’를 교과서 대용으로 학생 수업에 적극 활용토록 배부

▶ 노조활동 관련 문제점 분석

- 조직의 단결력 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강행
-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하여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불법집회

를 개최

- 자극적이고 과격한 불법 활동의 전개로 사회적으로 교원노조의 존재 및 영향력 과시
 - 민주노총의 하부노조로서 일반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는 경향
 - 교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선명성 경쟁으로 과행적인 非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음
- 교원노조는 아직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팽배
- 교원노조의 집단 연가, 조퇴 투쟁, 사무실 점거·농성 파업협박 등을 통해 무리한 단체협약 관철 유도
 - 불법행위를 행한 조합원의 신분상 조치가 교원노조의 집단적 대응에 밀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복무기강 문란
 - 기관장 재임 중 원만한 관계 형성을 역이용, 교원노조의 강력한 재검토 요구로 이미 결정된 교육정책이나 시책에 대해 노조의견을 수용하여 줌으로써 악순환 반복
- 불법행위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교육당국의 대응 미흡
- 교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방침 통보 후 그대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기강확립에 역행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노조의 세력을 무서워하여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홍보
 - 아무런 제재 수단과 방법이 없는 학교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오히려 학교 내 갈등과 반목만 증폭

- 교장선출보직제 등 관철을 위한 학교장의 권한 무력화 추진
 - 학교단위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노조활동으로 학교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에 일일이 간여
 - 교장 선출 보직제 및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인사권 확보 여건조성을 위해 시·도지부에서 단체교섭 이행 실태 점검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 학교장을 협박·위협
- 단체교섭의 우월적 입장 선점 전략 차원
 - 집단 투쟁적 집회개최 및 사무실 점거 농성
 -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관계없는 교육정책·교육과정·인사 분야까지 교섭의제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강요
 - 강성노조가 있는 시·도 교육청이 수용한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다른 시·도 교육청까지 수용 파급 시도
-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상호 기대의 차이
 -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학교장이 독선적으로 처리
 - 학교장의 교원노조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조합원 교원 무조건적 배척
 - 교원노조 교원은 교장의 권위 불인정, 학교운영 불만 제기

6. 소화기 분사 사건

2002년 5월27일 울산시 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20여명의 점거농성으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 전교조 울산 지부는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5월9일부터 이날까지 20일 째 교육청을 점

거, 농성을 벌여 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교육청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고성능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방송하는 통에 인근 주민들 역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할 지경이었다. 전교조는 이러한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점거농성은 그칠 줄 몰랐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5월22일에도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불법집단행동인 조퇴투쟁을 벌여 150여명이 교실을 팽개치고 교육청 마당으로 몰려온 뒤 교육청 학무국 계단과 복도 등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북을 치고 호각을 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날(5월27일) 오후 5시30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전교조는 학무국을 점거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퇴근을 저지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있었다. 이때 한 장학관이 이날 서울 강남교육청에서 열린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 출장에서 돌아와 깜빡하여 승용차에 연수자료를 두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 자료를 가져오려 나가려 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들은 그가 퇴근하려는 것으로 알았던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격분한 이 장학관은 소화기를 들고 와 분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제로라도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를 본 전교조 조합원 하나가 곧바로 또 다른 소화기로 이 장학관의 얼굴 정면과 교육청 직원들을 향해 분사함으로써 전교조 조합원들과 교육청 공무원들 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 일부가 초등교육과로 들어가 언쟁을 벌이던 중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의자

로 초등교육과 대형 원탁을 내리쳐 두꺼운 유리가 깨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육청 공무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오후 6시10분쯤 소화기를 분사한 장학관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사한 데 대해 두 차례나 사과했지만 전교조 지부장은 전 조합원이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한 건 조직폭력배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한 것은 전교조의 오만과 안하무인, 독선, 폭력성 등을 한꺼번에 다 보여준 것이다.

전교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퇴근시간이 지나 학무국 직원들이 나가고자 했지만 전교조가 가로막는 바람에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렇게 40여분이 지나서야 전교조는 일부 공무원들의 퇴근을 허용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기가 막히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선별적으로 퇴근을 허용했던 것이다. 전교조는 한 술 더 떠서 조합원들을 비상소집, 기세를 올렸다. 새로운 조합원들이 가세할 때마다 파상적으로 초등교육과에 몰려가 모욕적인 욕설과 트집을 잡았다.

오후 10시가 지나자 감금과 실랑이에 지쳐 있던 교육청 공무원들이 허기를 달래려고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다. 이들은 소화기 분말이 널려있는 초등교육과를 피해 초등교육과장실에서 식사를 하려 했다.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들려는 순간 전교조 조합원들이 들어와 “×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와 함께 식판을 뒤엎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음식을 던지며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다. 뿐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태파악을 위해 현장에 머물고 있던 교육청

보안담당 직원의 안경을 빼앗고, 넥타이를 붙잡아 끌며 목을 조르고 집단적으로 잡아끌어 위해를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후 전교조 울산 지부는 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묵시위를 했다” “소화기 두 개를 교육청 직원이 쏘았다” “술판을 벌이고 있어서 엊었다”고 왜곡함으로써 마치 모든 잘못이 교육청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II. 전교조의 정체성

1. 학생과 학부모를 투쟁의 주체로 내세워라!

전교조의 2000년 상반기 사립활동가 교육 자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투쟁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① 투쟁목표

투쟁목표를 추진 주체들이 총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모두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1단계 목표 : 이사진 전원의 승인취소(재단퇴진)

2단계 목표 :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민주적인 임시이사 선임)

3단계 목표 : 학교장 선임 및 학교현안 문제 해결

② 투쟁 주체의 단결

철저한 역할 분담(고발인 진술자는 대표가 아닌 사람으로 선정할 것)

담임교사 최대한 확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모두가 인식하는 내용이므로 언급생략)

③ 연대 대상에 대한 철저한 역할 분담 및 홍보

– 학부모

-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 함.
- 학부모의 선전 선동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싸움을 계획해야 함.
- 학년별 학부모회를 조직해야 하고 학년별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함

– 학생

- 학생회를 중심으로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함
- 학생 부분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승리한 싸움의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학생회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함
- 집단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함

예) 공동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여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가 HR과 수업시간에 집단적인 교육 등

이 문건을 보면 전교조의 투쟁목적은 사립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사진 전원을 퇴진시키고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선임케 하여 학교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민주적인 임시 이사란 따지고 보면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하거나 전교조의 뜻에 충실한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어도 그들이 전교조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 전교조는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며 또 다시 분규를 일으킨다. 이는 결국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 전교조의 위험한 통일관

전교조가 2001년 6월 '화해·평화·통일교육 길잡이'로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전교조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인식이 담겨 있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전교조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읽을 수 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제1장 '교사를 위한 강좌/시급히 교정해야 할 편견, 고정관념'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 전교조의 눈으로 보는 '교정해야 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해 통일이나 남북문제, 또는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존 인식이나 관념 가운데 전교조의 시각으로 봤을 때 편견이거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항 '대북지원과 민족화해' 편에서 전교조는 우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대해 '퍼주기'라는 항간의 비판에 의문을 제기한다.

2000년 국내 대북지원 금액은 총 1,364억 7천만원(1억 1,376달러)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비료 30만톤 944억원(7,863만 달러)이고, 민간단체 모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420억 7천만원(3,513만 달러)이다. <중략> 정부의 비료 지원금 944억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그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했고, 또 앞으로도 도입할 예정인, 한국지형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한 대 4,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대북지원액수를 우리의 방위에 필요한 무기구입금액과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선 놀랍다. 대북지원과 우리의 안보를 위한 무기구입비용,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단순 비교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가 무기를 구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교조는 의도적으로 대북지원액수와 무기구매액수를 비교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비용 내지는 냉전비용보다 통일비용이 싸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혹 통일비용이 싸다 하더라도 냉전 하의 무력대치 상황이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대북지원을 한다 한들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통일비용이 싸다는 점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전교조가 목적하는 바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위 인용글은 또 미국이나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전교조의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했고, 또 앞으로도 도입할 예정인, 한국지형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 대목은 ‘한국이 별 쓸모도 없는 무기도 미국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는 나라’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규정한 좌파이념운동세력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했었다.

다음은 대북지원에 대한 '퍼주기' 논란에 대한 전교조의 주장이다.

'받는 것 없이 펴다만 준다는 의식 속에는 경제주의적 상호주의의 의식이 깔려 있다. 경제주의적 상호주의는 '내가 1,000원어치 줄테니 1,000원어치 내놔라' 하는 식의 상거래 의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거래식의 상호주의가 대북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퍼주기'라는 비판 바탕에 상호주의의 의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전교조의 상호주의에 대한 설명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어느 누가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를 '1,000원어치 줄테니 1,000원어치 내놔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인가?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에서는 물론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그건 '1,000원어치 주고 1,000원어치 받는다'는 식의 의식은 아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든, 개인들 사이든 '관계'는 쌍방간 타협과 이해조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항상 등가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일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면 '관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퍼주기'라는 비판은 '1,000원어치 주었는데 왜 1,000원어치만큼 받아내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아니라, 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느냐는 비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것도 '받는 것'이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상호주의를 악의적으로 설명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전교조는 남북관계에서 이처럼 상호주의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대북지원이 가져오는 이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교조의 설명은 이렇다.

남북경협은 남북의 경제 의존도를 높여 서로 분쟁과 대립을 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 길이며, 해외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자주적인 경제로 만드는 길이다. 경제의 자주성 상실로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 시킨 경험을 미루어 보면 자주성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다.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남북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 분쟁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자주성을 높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 중 한국경제를 예속경제로 규정한 이른바 신식민지 사회론이 있었다. 전교조가 자주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남·북간 긴장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남북경협이 어떻게 예속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경제가 예속경제라면 그건 자본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지 남북경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아니다. 비록 한국경제가 초기에 예속성이 있었다 해도 자본력이 커지고, 기술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이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부상해 온 것도 경제의 예속성은 어디까지나 경제 자체의 문제일 뿐임을 말해준다.

전교조가 경제에까지 무리하게 자주성 운운하는 것은 80년대 이념

운동세력의 가치관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교조의 그릇된 인식이나 가치관이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전교조의 이상한 안보관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 말하는 안보관은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통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안보교육’이란 개념이다.<중략>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안보’란 ‘주적(主敵)=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며, 안보는 군사력을 확대해야 튼튼하게 된다는 생각, 안보교육이란 ‘북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아래 행해지는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는 교육을 ‘안보를 저해하는 교육’이라 여길 수밖에 없고, 때문에 ‘안보교육’과 ‘민족화해교육’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안보’란 ‘주적인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안보는 군사력을 확대해야 튼튼하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안보교육이란 주적인 북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상식의 소유자라면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면 이야말로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반세기가 넘도록 첨예하게 무력 대치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며 북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의 위협 앞에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는 교육을 ‘안보를 저해하는 교육’이라 여길 수밖에 없고, 때문에 ‘안보교육’과 ‘민족화해교육’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억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민족화해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다. ‘북을 긍정하는 교육’이 무얼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그게 엄존하는 북의 위협을 ‘냉전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로는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건 명백히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화해가 당위성을 갖는 것이라 해서 안보상의 위협을 외면할 수는 없다. 또 민족화해가 당위성을 갖는 것이라 해서 무조건 북을 긍정하는 것도 안 될 말이다. 중요한 것은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의 위협은 ‘현실’이라는 사실, 그러나 북은 우리와 통일을 해야 할 상대방이며, 따라서 민족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사실(fact)을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진정한 안보교육은 사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안보교육은 주로 ‘적(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키우는 것이 애국심과 국가수호의지를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에 입각해 있다. 이런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적에 대한 경계심, 적개심의 확대가 과연 애국심을 높여줄까? <중략> ‘증오와 두려움’을 증대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증오와 두려움’을 배워온 많은 모범생들이 이 사회에서 억압과 부정부패에 앞장서 왔음을 익히 보아 왔다. 병역비리, 무기 수입비리, 외화도피 등등… 이들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앗아가고 있고, 학생들에게 정의와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려는 교육적 노력을 무화시키고 있다. 이들이 야말로 우리 사회 안보의 최대의 적이다. 결국 ‘적’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 온 지금까지의 안보교육은 실패해 온 것임에 분명하다.

이건 궤변이다. 뿐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왜곡이다. 우리 안보교육이 ‘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키우는 방법이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적개심이 아니라 경계심일 뿐이다. 안보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이 적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것이 잘못이라면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북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북한 정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님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적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것이 애국심과 국가수호의지를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에 입각해 있다는 지적도 얹지다. 물론 애국심과 국가수호의지를 높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믿음에 입각해서 경계심을 키우려 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경계심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애국심을 높여주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증오와 두려움’을 배워온 많은 모범생들이 이 사회에서 억압과 부정부패에 앞장서 왔음을 익히 보아 왔다는 건 또 무슨 뜯딴지같은 소리인가?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적적인 시각으로, 말하자면 반칙이 승리한 역사를 규정하는 데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인다. 억압과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선진화할수록 우리사회도 민주화하고, 점점 더 깨끗하고 투명한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전교조의 논리대로라면 적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을 하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고,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을까?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건 안보교육과는 별개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교육이 결코 이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교육으로서 사회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에 대한 현실적 위협을 왜곡하는 것이다.

4.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이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인터넷 사이트에 떴던 슬로건이다.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는 이 슬로건은 전교조가 계급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계급투쟁의 에너지는 증오와 적개심이다. 그런 점에서 계급투쟁은 증오의 논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전교조가 계급주의의 관점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계급투쟁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투쟁’에서 증오와 적개심 같은 것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립학교를 분규로 몰아넣으며 전교조는 ‘재단(학교법인)’을 ‘타도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분노’를 주입시킨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발전한다. 물론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하지 않거나 전교조의 과격하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다른 교사들 또한 ‘앞잡이’ 또는 ‘구사대’로 매도하며 ‘타도대상(축출대상)’으로 삼는 만행도 서슴지 않는다. 실제 분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5. 전교조의 실체

전교조의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결성선언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전교조 결성선언문의 일부다.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반민주적·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 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 결성선언문을 보면 전교조가 80년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변혁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교조가 말하는 ‘모순’이란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전후 문맥으로 보아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은 반민족적·반민주적·독재정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재정권이 반민족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건 정권이 민족이 아닌 외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정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에 의 그 날까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말은 외세의 앞잡이인 반민족적인 정권에 맞서 싸워 통일을 쟁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이때의 외세란 미국을 말하는 것이다.

전교조의 공식 결성 선언문은 이후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로 미루어 전교조 역시 위 내용이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중성 획득이나 합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교조의 노선이나 가치관, 현실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걸 엿볼 수 있는 문건이 있다. 다음 대목이 그것이다.

“…사립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재단들은 약탈적(掠奪的)인 자본(資本)이 대부분이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원시적(原始的) 자본축적(資本蓄積)의 한 도구로서 역할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2000년 하반기 전교조 사립 조직 활동가 교육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약탈적 자본이라니 이건 무슨 의미인가. 교사들이 원시적 자본축적의 도구라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 위에서 말한 ‘2000년 하반기 사립 조직 활동가

교육' 자료 끝에 나오는 '투쟁가 모음'은 이러한 물음에 대답을 준다.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멈춰진 역사의 수레를 돌려라
노동의 힘으로 건설할 새 세상
열려진 미래를 벽차게 안으라
세상을 바꾸자 시장의 외침을
붉어진 분노를 박차고 일어나
파괴와 건설의 노동자 세상으로 나가자
진지하고 당당하게 노동하고 투쟁하는
그대는 노동자 역사의 주인이다
세상을 바꾸자 역사에 당당한 정의의 전쟁을
다시는 그 어떤 누구와도 노동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게

<단결투쟁가>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꺾어 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굶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수천의 산맥 넘고 넘어 망치되어 죽창 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거짓선전 분열의 음모 꺾어 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 들고 우리는 간다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다시 또 다시>

밟혀도 다시 일어서라 솟구쳐 일어서라
우리들의 분노가 멈출 때까지
밟혀도 결코 죽지 않네 일어나 투쟁이다
우리들의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우리 노동 형제들이 앞서나가는
힘찬 이 길에 우리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다시 또 다시 일어서라 싸우자
다시 또 일어서라

<철의 노동자>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뭉치세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 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투쟁 속에 살아 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얇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 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참교육의 함성으로>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옮기고
너와 나의 눈물 뜻 모아 진실을 외친다
보이는가 강물 참교육 피땀 흐르는
들리는가 함성 벽찬 가슴 솟구치는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 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반역의 어둠 사르고
이제 교육동지 굳세게 단결 전진한다
함께 가세 이 길 아이들의 넋이 춤추는
함께 가세 이 길 사람 사는 통일 세상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 노조 만세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동지>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쳐 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 받는 밤 차디찬 새벽 서리 맞으며
우리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이 투쟁가들의 가사를 보면 전교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말들이 있다. 말하자면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물론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도 있다. ‘세상을 바꾸자…노동의 힘으로 건설할 새 세상…붉어진 분노…투쟁…너희는 조금씩 깎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망치되어 죽창 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해방의 깃발 들고…밟혀도 다시 일어서라 솟구쳐 일어서라 우리들의 분노가 멈출 때까지,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강철 같은 해방의지, 철의 노동자…마침내 올 해방 세상…굴종의 삶을 떨쳐 반역의 어둠 사르고…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등등이 핵심적인 어휘들입니다.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는 ‘노동해방의 그 날까지 동지여 투쟁하자’ 쯤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노동해방이란 무엇인가. 그건 임금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걸 뜻한다. 곧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이들은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것을 노예상태로 보았다. 임금노예라는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인식이다. 전교조 문건에 나오는 ‘약탈적 자본’이니 ‘자본축적의 도구’니 하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투쟁가에 나타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투쟁가 중 ‘너희는 조금씩 굽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는 대목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그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세상을 뒤엎겠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건설되는 새 세상이 곧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고 해방 세상이다. 이를 위해 망치되어 죽창 되어 적(자본가)들에 대항하여 강철 같은 의지로 싸우자는 것이다.

전교조의 이념적 정체성을 짐작케 해주는 문건은 또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주간준비위원회 소식 2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특히 초등은 나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고령층이 많고 보수와 반동이 많음…관리자가 가장 근무를 꺼리는 고등학교로 소문난 나주여상은 보수층과 악질 반동이 너무 많은 학교라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악질반동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들을 수 없는 어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6·25 당시 공산군 점령 하의 악몽을 떠올릴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전교조가 어떤 집단인지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이대로 좋은가?

조형래 (배명고등학교 교장)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이대로 좋은가?

조형래 (배명고등학교 교장)

한 예로 한 교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김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는 출근 시간이 08시입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07시 30분 쯤 미리 출근 하셔서 그날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학습지도안을 점검을 하십니다. 오늘은 수업 4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08시 10분 이미 김 선생님께서는 08시에 교실에 입실하셔서 밝은 미소로 등교하는 학생을 맞이하고 아침 자습지도 및 조회를 하고 계십니다. 08시 15분 교실에서 퇴실하여 교무실에 오신 후 1교시 수업을 하려 1학년 1반으로 가십니다. 수업 시작종과 동시에 입실을 하여 수업을 시작 하십니다.

수업 시작 전 교실 분위기를 정리하시고 그 날의 수업을 시작 하십니다.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참고 자료와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십니다. 수업종료 5분전 이번 시간의 과제를 부여하고 전 시간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학급 회장으로 하여금 공책을 수합하여 교무실로 가져오게 합니다. 수업 시간 종료 종과 동시에 교실에서 퇴실하여 교무실로 오십니다. 2교시 1교시와 동일하게 수업을 하시고 교무실로 오십니다. 3교시 학생들의 과제물을 점검하고 개

개인의 공책에 오류 사항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4교시 수업을 마친 후 교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담임 학급을 한번 순회 지도를 하십니다. 5교시. 그날의 업무를 하십니다. 남은 시간에 교재연구를 합니다. 6교시 수업을 하십니다. 7교시 오늘 오후에 면담 할 학생 두 명의 학생 상담누가기록부와 얼마 전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여 상담 할 내용을 정리 하십니다. 종례시간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 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훈화와 전달사항을 전달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교실 청소를 하시고 교실의 시건 장치를 확인 한 후 교무실에서 오늘의 면담 학생 두 명과 면담을 하십니다. 어느덧 퇴근시간이 16시 20분이 지났습니다. 밀렸던 업무와 두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누가 기록부에 기록한 후 어느덧 17시가지나 갔습니다. 오늘 지각한 박 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퇴근을 하십니다. 벌써 해가 어느덧 도시의 빌딩 사이로 넘어갑니다. 이상 김 선생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김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현재 사립을 제외한 공립의 많은 중,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변화를 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는 여자 교원이 80% 이상 중학교는 여자교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급당 인원수는 40~4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는 한 학급당 33~ 28명으로 편성되며 고등학교는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교단의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시대에 교사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또한 62세로 정년이 단축된 이후로 교직사회는 무너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 한 것 전교조 단체 협약이 큰 역할을 담당 했습니다.

다음은 전교조 단체 협약 중 일부입니다.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임을 받은 서울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위임을 받은 서울본부)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조합 활동

제1조 【교원노조활동 및 홍보활동 보장】

- ① 조합원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교내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게시판과 현수막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홍보물의 배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행사성 홍보나 교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60시간 이상의 교원연수과정에 2시간 이상의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운용하도록 권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있어 강사와 강의내용에 대해 교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편의 제공】

- ① 교육청은 시·도 단위의 교원노조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제5조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연구 행사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제6조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7조 【정책·업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정책·업무협의회를 연 6회 실시하되, 그 중 4회는 노조별로 2회씩 실시한다.
- ② 정책·업무협의회 운영방법은 안건별 해당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 고 대표는 부교육감급 이상으로 하되, 3회는 교육감이 참석한다.

제 2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

제8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 ① 각 학교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 한다.
 -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 연수, 상벌, 과견, 훈·포장에 관한 사항
 -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 기타 인사 관련 사항
- ②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위원은 모든 교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성한다.

제9조 【교원인사관리원칙 협의회】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교원노조의 참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 ① 교원의 일·숙직은 폐지하며, 보안 점검부(표)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서무)실 등에 비치하고, 보통교실에는 비치하지 않는다.
- ② 주변교사, 당변교사 제도는 폐지하고 휴업일에는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학년 및 학급담임이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③ 근무상황카드(출근 보조부)또는 출·퇴근 시간 기록부, 출·퇴근시간체크기는 폐지한다. 또한 교내근거리 통신망(LAN)에 의한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는다.
- ④ 법정장부 이외의 기타장부(학교일지, 실험실, 컴퓨터실 등의 특별교실 사용일지, 교무일지, 각종 누가기록부 등)는 교원업무경감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교원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학교에서 소년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 자료로 강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대가성 있는 기금이 수수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⑥ 중식지원, 안전공제회, 성금모금, 우유급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급식 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⑦ 금전출납, 징수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교과서 대금징수 및 정산업무와 대외주문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학교에서 폐휴지를 비롯한 폐품을 수합하지 않도록 한다.
- ⑩ 학교에서 장학적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 ⑪ 협동조합(매점)업무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교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교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⑫ 교육청은 민방위 업무, 제반 증명서 발급사무를 행정실로 이관하고, 전출입 관련 사무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실이 담당하고,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제반서류를 완비한 후에 교무전담사무보조원이 결재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⑬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단체 활동은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으로 이관하도록 검토 노력한다.
- ⑭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글짓기, 주장발표, 그리기, 경시 대회는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⑮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도록 하며, 보고를 요하는 공문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발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은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의 동원을 억제한다.

제18조 【교원의 처우개선】

- ① 교육활동(소풍,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특별활동 등 포함) 및 교육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교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에 따른 이전비와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 【사립학교 교원 임용】

-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이 관계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재정지원 정원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제 2 절 교육여건

제22조 【표준수업시수의 준수 및 수업연구비 지급】

- ①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표준수업시수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수업시수는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 ③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는 평균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교사간에 차이가 나지 않게 지급한다.

제23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사 및 외부강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보전해주고 인력풀 제를 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보충수업 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며, 방과 후 교육활동,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 ③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만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방과 후 교육활동의 과행운영을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⑤ 학교장은 교사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기적성, 상설특활교육, 방과 후 특별활동 교육, 학부모 취미교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익자부담의 특기적성지도교사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31조 【학교 예·결산의 공개】

학교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은 분기별로 공개한다.

제32조 【사립학교 정관 및 예·결산 공개】

- ① 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을 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예·결산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예산편성 및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 내용을 예산편성 및 결산 시 공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 3 절 제도 개선

제38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 ①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9조 【학교평가의 개선】

학교평가는 평가영역을 축소하여 현장방문 평가 위주로 실시하도록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40조 【장학지도의 개선】

장학지도는 유용한 교수 학습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형식적인 문서 확인과 요식행위를 없애며 평가나 감독기능을 줄인다.

제42조 【학년공개행사 및 수업연구발표】

초등학교의 학년공개행사와 초·중등학교의 수업연구발표는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자율장학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쳐 동료교사의 수업참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 【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학급 경영록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으며, 학년별·교과별 연간지도 및 평가계획은 학년별·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매학기 초 학교장이 결재한다.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한다.

【단체협약이외의 합의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원노조간 2004년도 단체협약 적용범위

- 교원노조와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교원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됨.
- 그러나 교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공립학교 교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일률 적용받으므로 비조합원인 공립학교 교원도 사실상 적용받게 됨.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규칙이나 장학지침, 행정지침 등을 정할 때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미치게 함.

2004. 5. 25.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인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유승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장 서태식

교직사회에서 선배교사를 후배교사가 존중하던 시대는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1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전의 원로교사, 우대나 또는 선배교사 우대니 하는 말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수업 시수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주의운동의 한축이 되고나서부터는 민주와 반민주 또는 독재의 개념으로 선배교사는 반민주의 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수구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은 전교조와 교육청과의 단체 협약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을 사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하 전교조 가입교사는 J 교사로 표현)

▶ 사례1

가 고등학교는 생활 상담 누가 기록부를 30년 전에 작성하여 상담학교의 모범이 되었으며 전국의 학교에 상담누가기록부의 기본이 되어 여러 학교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록부는 학생의 생육사(生育史)가 기록이 되어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기록 나이스에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 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은 기록을 하거나 또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장부가 아니라서 기록을 못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학생과 상담 및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잡무인지 업무인지 전교조 교사들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례2

나 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두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필요해서 교사 초빙 공고를 하여 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J교사는 면접당시에는 “저는 지리와 사회 두 과목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학교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3년차에 교감선생님께서 올해도 두 과목을 강의를 해야겠다고 하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공이 지리라서 사회 강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교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 사례3

나이스가 사용이 되며 업무가 간편한 것도 있으며 보완의 목적인 서류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나이스도 매일 입력을 해야 하나 한달

에 한번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출석은 고등학교에서는 특이 내신과 관련되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지도 혹은 조회 종례시의 훈화를 기록하고 그 학급의 출결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급일지는 없어졌지만 주간일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발생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이 아닌 일반 선생님들은 그 장부의 목적을 알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법정 장부가 아니라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 사례4

라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 조직 시의 사안입니다. 사립 고등학교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정관에 있는 학교 내의 법적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는 교장, 교감, 그리고 간부교사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허술한 정관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들의 논리에 맞게 해석을 하여 투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교조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 민주적 인사위 구성 투쟁의 의의

1. 전반적인 의의

- ① 법 적용의 원칙을 세운다.—사립학교법, 사학 법인 정관
- ② 비민주적 인사 관행의 틀을 개선한다.
- ③ 학내 민주적 풍토를 조성한다.
- ④ 재단이나 관리자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 ⑤ 민주적 제도 마련의 기틀을 세운다.
- ⑥ 교권을 회복하고 주체로 나선다.
- ⑦ 조직 확대에 직,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 ⑧ 지역사회 및 권역 학교와의 연대의 틀을 형성할 수 있다.

2. 단위학교 분회 강화로서의 의의

- ① 재단 및 관리자와 교사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하나의 대오를 형성 할 수 있다.
- ② 상시적 모임 체계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분회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 ③ 정체되고 이름만 있는 분회가 아니라 내용성을 담보하는 생동하는 분회로 거듭날 수 있다.
- ④ 투쟁 과정에서 동지애를 인식하고 단결의 힘을 체득한다.

이러한 의의 속에 선도 투쟁학교를 선정하고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라 고등학교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단체로 교장실에 난입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 교장 선생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자, 발로 교장실 문을 발로 차고고 나오며XXXXX라고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연세가 60세 이었으며 문을 바로차고 옥설을 한 교사는 30대 이었습니다.

▶ 사례5

각 학교마다 교과 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과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의 학생들 지도 사항과 학습 진도, 평가(시험), 수행평가등을 계획하고 또한 교과 특기적성계획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회의가 끝나고 특기적성회의 시 전교조교사는 “난 안해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

람들만 해”하고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도 우리도 하지 말자하고 회의를 끝냅니다.

▶ 사례6

바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자 “학원숙제를 외 나한테 질문 하냐? 학원가서 질문해”라고 답변을 하며 “나는 너희 안 가르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요. 또한 다른 선생님은 “너희들 어떻게 이런 X통학교에 다니냐 나 같으면 자퇴한다!

아무리 학교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그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사례7

사 고등학교에서도 교과 특기적성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교사는 교과 특기적성을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과목별 단원별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여 그 학기 특기적성계획을 편성하는데 J교사는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교감선생님 이 왜 개설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자 “전 퇴근 후에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근 시간은 4시30분 교과 특기적성은 3시부터 3시 50분 까지 50분간입니다. 퇴근 후 자신이 생활을 위하여 금 무시간 중 휴식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이 있습니다.

▶ 사례8

아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답사를 해야 합니다. 그 수학여행코스는 서울에서 기차로 부산에서 배를 이용하여 일본을 가는 것 이었습니다. 답사란 학생들이 이동하는 코스를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전 코스를 면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J교사는 답사는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조건이 비행기로 주중에 다녀오겠습니다. 방학 때는 못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두 분은 다녀오셔야 하고 그 수업 결손은 어떻게 하며 나머지 코스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허락을 안 하자 그럼 저희는 안갑니다. 하는 수 없이 연세 드신 선생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사례9

자 고등학교에서 불우이웃 돋기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웃을 돋는 봉사 정신도 길러 주어야합니다, 각 학급별로 모금을 하는데 몇몇 반이 한 푼도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J교사 대답 “우리 반 학생들은 전화로 ARS성금을 해서 모금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봉사정신을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체 생활에서의 봉사도 있습니다.

▶ 사례10

매년 각 학교에서는 환경미화를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일년에 두 번 환경미화 심사를 합니다. 운동장이 보이는 교실은 학습능률과 수업 분위기를 위하여 운동장 쪽 창문하단을 흰색 썬팅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한반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환경 미화부장님께서 질문을 하자 학생들의 가시권 및 시야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 끝까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사례와 기막힌 사연 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 및 교감 선생님은 전교조 교사들의 적입니다. 교단에서 사서삼경과 삼강오륜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아직도 옛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지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삭히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하거나 들을 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죄송하지만 메일로 사안들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메일로 보내 주시는 분은 상당히 적으십니다. 다들 우리학교는 팬찮아 조용해 졌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 되어야 합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힘내십시오!

전교조 급진 좌파적 이념 문제의 심각성

정재학 (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전교조 급진 좌파적 이념 문제의 심각성

정재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민주노동당 노회찬은 누가 물으면 ‘나는 빨갱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닌다. 우리 사회의 좌파라는 뜻이고, 우익의 상대적인 의미이며, 또한 우익이 실행하는 정책에서 보완적인 의미를 갖는 좌익이라는 뜻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사회의 빨갱이들이 과연 다른 선진국에서의 좌파와 같은 정책보완적인 기능을 지닌 순수이념의 좌익일까?

만약 노회찬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분배우선의 정책을 지향하고, 억압받는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그는 왜 인천외고 사건에 나타났을까. 왜 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과 시위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파멸적이며 부도덕한 시위와 집회를 응원하였을까. 두발이나 이성교제 와 같은 학생회칙이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전교조는 2003년 여름 <전국 교육 주체 자결의 대회>에서 학생들을 ‘학생동지’라 불렀다. 해남 농민대표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전교조 교사들은 환호하였다. 지금 우리 교단에 학생동지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前 전교조 위원장 원영만은 그 현장에 나타나 학생들에게 끝까지 싸워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선생님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학생을 학생동지라고 부르는 자가 과연 누구일 것 같은가. 어린 학생들, 아직 사고(思考)와 가치관이 인생관을 지탱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주먹을 쥐고 악을 쓰고 있을 때, 양식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일 것인가. 교사는 교실로 들어가서 본분에 충실히 일을, 학생은 학생으로서 실력연마에 노력할 것을 당부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학생동지’를 지지하면서, 승리를 위한 투쟁을 당부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대책회의 도중에 식사를 하는 자기 부모님들 모임 장소에 찾아가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폐륜을 자행하였다.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전교조 교사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인천외고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런 전교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의지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는 결과가 증명해 주는 법이다. 노회찬의 언행은 노회찬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다. 소 사골을 고아보면 소 사골국물이 보얗게 나오는 것이지, 절대 감자국물이 나오지 않는다. 인천외고 사건에서처럼, 그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불행과 파멸로 몰고 가려는 공산주의 혁명론자이자 적화통일세력이지, 대한민국의 우익과 좌익을 중화시켜 대립을 종식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아니다.

어린 학생들은 가르치고 길러야 할 존재이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노회찬이 같은 자와 궤도를 같이 하는 통일연대 그리고 한총련, 전교조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 참세상’을 부르짖는다 하여도 그 진의(眞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6.25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도 ‘네 것 내 것 없는 평등한 공산주의 좋은 세상’을 이룩한다는 미명(美名) 아래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갖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 그 빼앗긴 ‘내 것’ 중에는 내 자유로운 개성과 취미, 생각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업마저 당(黨)이 보내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했다. 사랑도 당을 위한 충성으로 바쳐지는 곳. 그런 세상을 그들은 좋은 세상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전교조도 교단에서 ‘참세상, 참교육’을 부르짖으며, 온갖 투쟁과 고소고발을 통하여 동족(同族)을 살상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학생동지로 만들고 있으며, 투쟁의 대열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참세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폭력투쟁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합과 삶이 조화로운 자유·민주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제된 사고 속에서 피를 부르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I . 참세상 참교육론

1. 참세상 참교육의 정의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참세상은 무엇이며, 참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세상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말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바로 레닌과 스탈린의 볼셰비키 혁명과,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이룩한 피와 죽음의 세상이었다.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의 악의(惡意)가 수 없는 피를 뿌려댔던 세상이었고, 지금은 사라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었다.

이제는 종말을 맞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박제(剝製)가 되어 누워있는 사상을 꿈꾸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을 통해 무수히 번식하고 있는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부르짖는 참교육은 바로 그 공산주의 참세상을 위해 하는 교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들고 나온 ‘참교육’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한 교육이었고, 또한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자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노동자가 된 그들은 정권의 지지를 받고 사회노조와 연합하여

오늘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참세상 참교육’의 정체를 모르고, 그저 참교육이라는 말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 그들을 지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도 참교육이라는 언어에 속아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동안, 내 소중한 자식은 어느덧 붉은 투쟁의 대열에서 노동자 세상을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

2.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새는 분명 두 날개로 날아간다. 우리 사회도 좌익과 우익의 두 날개가 서로를 지탱하여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고 단점을 중화시켜 주어야 한다. 어느 일방만 존재하는 사회는 분명 건강할 수 없다. 자유가 지니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보완하고, 절대평등이 낳는 단점을 자유경쟁으로 끌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래야 한다.

능력과 직업의 우열(優劣)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펴 빈자(貧者)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취미와 개성, 그리고 자유의지마저 강제하여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억지스러운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상은 노동자 농민만이 있는 곳이 아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직업이 서로 상생(相生)을 추구하며 시장(市場)을 이루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의 좌익과 전교조는 노동자 농민만의 세상을 꿈꾸는가. 노동자 농민만의 세상은 균형 잡힌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들은 이 불균형을 균형(均衡)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강제를 자유라
말하고, 공산독재를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말한다. 자유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말하면서, 그들은 돈 되는 일에만 눈을 부릅뜬다.

II. 유물론적 사고와 교육관

1. 교사의 노동자론

전교조는 그들이 꿈꾸는 노동자 세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되었다. 그 노동자는 오직 노동의 대가만을 바란다. 일에 대한 장인(丈人)으로서의 자부심이 없는 천박한 노동자.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이 유물론적인 시각은 정신보다는 물질 우선의 대가를 바라는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돈 주면 가르치고, 돈 안 주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전교조 노동자들. 이 유물론자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학생들이 돈으로 보이는 교실. 거기 어디에 순수가 있고 사랑이 있을 것이며 존경이 있겠는가. 더구나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또 어디에 있겠는가.

돈 안 주는 아침자율학습 감독은 참교육이 아니라서 안 하겠다고 악을 쓰고 대들면서, 돈 주는 오후 보충 수업은 서로 하겠다는 누추(陋醜)와 천박(淺薄)함이여.

2. 이해찬의 노교사(老教師) 퇴출과 전교조 진출

우리 교단에서, 이 사회주의 유물론이 극성을 부릴 때가 바로 이해찬 시대였다. 호봉이 많은 노교사(老教師) 대신에 젊은 교사 둘을 쓰면 더 효과적이라는 발상이 바로 유물론이었다.

모든 세상이 그러하듯 노장(老壯)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존재하는 법이다. 숲을 보라. 거기에도 어린나무 큰 나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늙은 노송(老松)이 있는 자리에 어린 소나무 열 그루가 있다 해서 그 숲이 짧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하겠는가.

늙은 경험이, 또한 깊은 연륜(年輪)이 주는 향기를 그들은 죄악시(罪惡視)하였다. 술한 어른들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고 퇴출 되었다. 그 중에는 바로 이해찬을 기른 스승들도 있었다. 이해찬은 자기를 기른 스승에게도 바로 이 유물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패륜(悖倫)을 자행한 자가 지금 이 나라의 국무총리다.

스승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대접을 받는다. 부모가 육신을 낳아주었다면, 스승은 그 육신에 바른 정신을 불어넣고 길러주는 정신의 부모이다. 하물며 군주(君主)와 같은 지위를 갖는 스승이 단지 물질의 경제성에 의해서 버려진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노스승들이 쫓겨나간 자리에는 누가 들어왔을까. 바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한총련에 가입하여 온갖 시위와 데모를 주동하고 반미를 외치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마저 들어왔다. 전공을 무시하고, 그들은 몰려 들어왔다.

남민전에 가담하여 남한 전복(顛覆)을 획책하다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던, 현 전교조 위원장 이수일 같은 무리도 들어왔고, 심지어 공사립에서 개인적인 비리로 해직된 자들도 덩달아 들어왔다. 교육과정만 이수 받았으면, 농대 출신마저도 민주화 투쟁을 빌미로 전공을 바꾸

어 모두 들어왔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공립으로 발령을 받았다. 바로 공립학교가 전교조 해방구가 된 근본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만약, 이해찬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정년을 낮추고 노교사 명예퇴직을 유도했다면, 이해찬은 김대중 노무현과 더불어 국외추방을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교단이 스승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어떤 개판이 되었는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그 대가를 지불케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로 이 나라에 사회주의 유물론자들이 양산되고,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 무리를 배양시켰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 전교조 밑에서 사회주의 정신에 물든 우리의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바른 시각과 정신, 사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나라의 바른 진로(進路)를 가로막는 무리들이 지금의 정권이다.

3. 전교조 사회주의 교육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보충자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국민들은 기겁을 할 것이다. 바로 과거 불온서적이라 했던, 민중혁명서적들이다. 역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일관된 투쟁으로 보는 편향된 서적들. 학생들에게 적개심(敵愾心)을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사진들. 바로 노동자 농민들이 펫박을 받는 장면들이었다. 그 민중서적들은 일제강점시대 독립운동마저도 노동자 농민 해방운동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지금 그런 서적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에게 민중의 혁명성만을 가르치고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원되는 투쟁, 즉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투쟁하는 자는 후퇴가 없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공격만을 가르친다. 그것도 관용이 없는 공격을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전교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순백한 학생들의 머릿속에 적을 만들어주고, 그 적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스스로 노동자이므로, 교장과 이사장은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를 가르친다. 학교를 지배구조로 설명하고, 교장과 이사장을 선생님의 노동을 착취하는 적으로 가르친다. 착취하는 이상, 적에대한 용서는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학생들을 몰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전교조 날치기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전교조 분규에는 바로 이런 전교조 교사들의 공작(工作)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학교장 고소를 위해 학부모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숙제를 낸 교사도 있었다.

경제 교육 역시 학생들에게 분배를 먼저 가르친다.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분배 우선의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바로 사회주의 경제학인 것이다. 가진 자에게 나눠줄 것을 먼저 요구하라는 교육. 그들은 졸업 즉시 산업 현장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분배를 요구하는 시위에 들어간다.

전교조가 길러놓은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 기업이야 망하든 말든 내 손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오느냐에만 관심을 쏟는다. 그 결과 많은 직장이 폐쇄되고, 그들은 결국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적자를 보는 직장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결국 망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남한에 노조운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기업을 노조가 점령하든 아니면 망하든 원하는 것은 혼란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망하면 망해서 좋고,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 그만큼 불만과 사회혼란이 쌓여갈 것이기에 좋을 것이다. 바로 그 틈새를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 적화통일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무르익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단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 전교조 전 위원장 원영만과 노회찬이 연호하던 ‘학생동지’들이 혁명의 전사로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4. 북으로 가려는 새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익과 좌익 두 날개로 조화를 이루어 높이 높이 위대한 영광의 하늘을 향해 날아갔으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조화로운 날개를 가진 새가 아니었다. 전혀 크기와 색깔과 목적하는 방향이 다른, 기형(奇形)을 지닌 새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땅의 좌익은 절대 평등과 사회주의 실현을 꿈꾸며 자유민주를 말살하고 새의 머리를 통째 북으로 돌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새의 머리를 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한쪽 날개는 자유민주의 나라로 가려고 하고, 한쪽 날개는 주체평등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기형(奇形), 즉 분명한 혼란이다.

이제는 누구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날개를 지닌 새만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날개도 날개 나름이기 때문이다.

III. 평등 우선의 사회주의

1. 고교평준화

그리하여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전교조가 실현시킨 과업 속에는 고교평준화가 있다. 모든 학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회의 평등만 있을 뿐,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 억지가 잠재되어 있다.

모든 사회주의 이론의 허점이 바로 그것이지만, 인간은 자유로운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욕망이 경쟁을 낳고 발전을 낳는다. 100미터 출발선(出發線)은 평등하지만, 결과는 저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은 기회의 평등을 말하지만, 한마디로 사회주의 이론의 오류에 빠진 견해이다. 그 평등한 기회는 이미 초등에서 끝나야 한다. 고교에서까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100미터를 달리다 30미터에서 일렬로 다시 세우고, 다시 70미터에서 다시 일렬로 세우려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고등으로 대학으로 가는 교육과정에서, 노무현은 단계마다 일렬로 세우려는 사회주의적인 평등의식에 휩싸여 있다. 강제된 평등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취미와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적성과 능력의 높낮이를 알고, 개인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강제된 평준화 속에 집어 넣는다? 그렇게 되면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는가? 실력 없는 하향평준화, 실력 없는 학

생, 실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인가.

2. 사교육에 대한 노무현의 사회주의적 시각

교육을 할 때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단은 목적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정책은 이 수단을 목적 앞에 두고 있다. 바로 사교육 문제다. 지금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만큼이나 거대하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가난한 대학생들이 학비를 벌어 쓰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없는 곳은 오직 섬마을뿐일 정도로 학생들이 있는 모든 곳에 사교육은 존재한다.

바로 이 사교육을 없앤다는 것은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고,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며, 가난한 대학생들의 삶을 가로막는 행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려는 교육의 목표에 사교육이 얼마나 공헌하느냐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교육이 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려는데,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 없애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이 돈 주면 가르치고, 돈 안 주면 안 가르친다는 공교육 현장을 지원하려 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 한다면, 공교육이 먼저 신뢰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가 신뢰를 갖추면 학생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비평준화 시절의 일류 고등학교였다. 당시 경기고며, 서울고며, 용산고, 그리고 지방의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실력을 갖추었으며, 열심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여, 그 학생들이 오늘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낸 것이다.

노무현은 사회주의적인 편견(偏見)에 집착하고 있다. 절대 평등의 시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사교육이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둘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고, 학교를 신뢰받는 곳으로 만들지 않고, 사교육비 잡는 것을 교육의 목표쯤으로 알고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가 본 하늘은 파랗다고 한다. 바보는 하늘이 때로는 파랗지만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비구름과 태양이 번갈아 차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노무현은 구름이 흐르는 하늘 공간에 변화하며 존재하는 거대한 자유의 크기와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3. 학원으로 가라는 전교조 교사들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다. 무서운 사람은 무기를 들고 목숨을 위협하여 무서운 것이 아니다. 차라리 무기를 든 사람은 무기를 들었음으로, 적임을 알고 대처할 수나 있다. 그러나 적인지 모르게 적인 사람은 무섭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척, 인자하지 않은 사람이 인자한 척,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이 덕인(德人)인 것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그가 짓는

미소에 그만 속고 만다.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자고 범국민적 노력을 기울이는 이 때, 사회주의 실현 차원에서 그리고 잘 사는 계층의 고액과외를 적극 반대하는 전교조가 학생들더러 학원에 가서 배워오라고 했다면, 믿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 논술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 학원에 가서 배워라. 논술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이것을 위선(偽善), 또는 가식(假飾)이라 한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이념과 현실의 괴리(乖離)가 깊어지면 비로소 나타나는 전교조의 위선적 이중성.

그러나 노무현은 이러한 전교조 출신을 청와대로 데려갔다. 교육 문제를 전교조 시각으로 해결코자 한 것이다. 아무리 어리석다 한들 이만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통해서도 듣고 본 적이 없다. 오직 좌익정권에서나 있는 일일 것이다.

IV. 폭력 투쟁

1. 고소고발의 확산

전교조가 있는 어느 학교든 거기에는 반드시 분란이 있다. 학교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노동을 착취하려는 사용자(使用者)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에서 벌어진 사례를 보면, 차마 웃을 수조차도 없다. 얼마나 전교조 위세를 믿고 개판으로 살았는가, 교장이 직권 내신으로 육지로 쫓아버린 선생이 있었다. 직권 내신이란 본인의 희망이 없어도 근무평정 점수를 ‘수 우 미 양 가’ 중 ‘양’을 주면 학교를 떠나게 된 장치이다. 이 교사는 그리하여 승진점수로 사용되는 섬 근무 점수를 떨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이 교사가 다음과 같은 행정소송을 냈다.

교장이 독단으로 발령을 낸 관계로,

- ▶ 도서(島嶼)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섬 근무 점수를 떨 수 없게 된 점
- ▶ 벽지수당 및 의료비 등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 점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 전교조는 시비(是非)가 발생하면 무조건 고소고발을 선호한다.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서승목 교장선생님 자살 사건과 같은 경우)과 수차례에 걸치는 경찰서 조사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찰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기분을 생각해 보라. 오죽해서 자살을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인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그 과정이 주는 압박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게다가 주위의 시선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교조는 되든 안 되든 고소고발부터 시작한다. 법의 칼을 빌린 폭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에 걸리면,
첫째, 나이 어린 것들에게 당할 수로부터(삿대질이며 욕설이며)
둘째, 고소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

노무현은 이 문제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전교조 발생 이후 전교조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를 그 전(前)과 비교해 보라. 얼마나 많은 교장교감, 평교사 선생님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가를 알게 될 것이다.

2. 시위와 협박

투쟁은 싸움이지 온유(溫柔)가 아니다. 전교조는 온유가 아니라 투쟁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전교조 투쟁은 패악(悖惡)이지 온유와 사랑이 아니다. 따라서 투쟁을 실천하는 전교조는 사랑을 선택한 교사들이 아니다. 거친 욕과 핏발 선 눈으로 노려보는 사람들. 교육청이든 야당지도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 누가 보든 상관없다. 어린 꽃 같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서슴없이 길거리에 드러눕고 주먹을 흔들면서 몰려간다.

이것이 교사일 것인가. 어린 영혼을 기르고 가르치며 보호하는 선생님일 것인가.

누군가는 그러리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전교조선생님이 앞장서고 있다고. 그렇다면, 좋은 세상이 바로 노동자 농민만의 세상이냐고. 온유를 가르쳐야 하는 본분을 잊고 누가 선생님더러 노동자가 되라 했느냐고, 나는 물어보리라. 전교조 선생님이 말하는 ‘좋은 세상’이 돈 주면 가르쳐 주고, 돈 안 주면 안 가르치는 세상이더냐고. 나는 그들의 가슴에 대고 물어보리라.

V. 국방 무너뜨리기

1. 예비군제 폐지

민주노동당은 선거공약으로 우리나라 예비군을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예비군이란, 전쟁 발발(勃發) 시 또는 이에 버금하는 유사시(有事時)에 지역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예비군(豫備軍)을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이건 이러한 예비군은 방위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영세(永世) 중립국인 스위스가 그러하며, 세계 최강의 미국도 전쟁이 나면 반드시 예비군을 주력군으로 동원한다. 정규군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쟁 도중에 잠시 휴전 중인 나라이다. 전쟁을 영원히 거부하는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도 운영하는 예비군을, 민주노동당과 그 소속 단체인 전교조는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다.

자, 이 현상을 우리는 무어라 해야 하는가. 단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자는 수작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나라를 전쟁 상대국인 북한에 넘기자는 수작으로 보겠는가. 그것도 일시적인 주장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출범 당시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끈질긴 주장이라 할 때, 이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적화통일 아니겠는가.

예비군이 국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치자. 전쟁이 나면 민주노동당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예비군에 들어가겠는가, 아니면 북한 노농적 위대에 들어가겠는가.

2. 보안법 폐지

보안법이 불필요한 사장(死藏)될 법으로 보는 논거도 역시 예비군제 폐지와 궤(軌)를 같이 한다.

우리는 보안법으로 겪는 불편은 없다. 우리 같은 서민은 특히 노동운동이나 전교조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안법이 불편하지 않다. 보안법은 나라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을 적으로 보는 이상 우리는 보안법이 우리의 법,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법임을 안다.

그러나 적을 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보안법이 불편할 것이다. 적은 지금도 적화를 꿈꾸고 있으며, 우리의 해군을 향해 총과 포를 쏘아댔다. 통일연대에 소속된 자들이 간첩 활동을 하여 체포되고 있다는 뉴스를 듣는다. 불편할 것이다.

보안법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형제, 벗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지금까지 존치된 법이다. 적은 불편할 것이고, 적을 적으로 보지 않는 자들도 불편할 것이다.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가상의 적국이다. 총을 들면 누구나 적이다. 지금 북은 우리에게 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무리들은 불편할 것이다.

대법원도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였다. 북이 평화를 위해 변화하였다는 확신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보안법 적용하는 대상을 단순히 북에 한정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법마저 없애자는 자들은 언제든 시기

가 되면 인공기를 들고 나서겠다는 것일 게다. 지금도 대학가에는 인공기가 나부낀다. 한총련의 손에도 변함없이 들려있는 추종의 깃발이다.

6.25 동란 이후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이에 동조하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속에는 남민전 출신과 한총련 출신들이 대거 잠복해 있음을 알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보안법이 두려운 우리의 적을 옹호하는 자들이다.

3. 국정원 기무사 폐지론

그리고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없애자고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좌익들이다. 역시 불편할 것이다. 과거나 현대나 나라의 운명 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정보력이다. 누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갖느냐는 것은 곧 누가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정원을 없애고 군기무사를 없애자?

우리는 국정원이 백 개 있어도 두려울 것 없고, 천 개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모두 이 나라 국민을 보호하려 하고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관을 싫어하는 자들은 아 나라 국민이 아님에 분명하다. 바로 적 아니겠는가.

4. 북과 싸우기 싫은 청소년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통일관은 바로 전교조 교육의 영향이 크다. 북은 분명히 우리의 동포이나 김정일 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임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김정일 체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덮어두고 북은 동포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전쟁이 나면 미군에 총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모두 전교조가 의도한 교육대로 청소년들은 친북한 - 반미로 이어지는 통일관을 갖게 된 것이다.

진정한 통일관은 아래야 한다.

‘북은 동포이나, 김정일 체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다. 고로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통일의 장애물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김정일 1인 왕국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군이 우리의 적임을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전교조는 북의 지휘를 받는 적화통일 전위대들이고, 교단에서 동포애를 부추겨 북의 입장을 옹호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 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유사시(有事時) 북을 돋는 통일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VI. 반미운동과 통일

현 우리 민족이 바라는 절대(絶大)의 선(善)은 통일일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숙원(宿願)이며,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루어 물려주어야 할 유산(遺產)일 것이다. 나 아니면, 다음, 다음 아니면 또 다음에 가서라도 성취해야 할 미완의 그릇. 그것은 통곡(痛哭)이며 고통스런 몸부림일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 꿈을 가진 모든 이가 바라는 통일. 그러나 전교조는 통일을 말하되, 통일된 나라의 정체(政體)를 말하지 않는다. 공산인가 자유민주인가를 말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언어 속에 그의 문을 묻어버린다. 마치 적화통일 운동을 참교육이라는 미명(美名) 속에 묻어버리듯, 그들은 오직 연방제 통일만을 부르짖는다.

그들은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로 통일의 주체를 설명하지만, 자본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주체사상과 공산(共産)을 추종하면서, 미군부대 앞으로 몰려간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남파간첩으로 내려와 이 사회 전복(顛覆)을 획책하던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 투사라 지칭한다.

미군이 담당하는 한반도 방위의 거대한 축을 무너뜨리려, ‘우리 민족끼리’를 제창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어린 학생들 손에 촛불을 들려 광화문으로 보내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그들이 보인 행동의 결론은 미군철수였다. 전교조는 수행평가 점수를 미끼로 학생들을 거리로 유인하였다.

어린 소녀들의 죽음도 결국 결론은 미군철수였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도 마지막엔 미군철수로 연결되었다. 그것이 통일운동의 전부였으며, 바로 60년 전 남로당과 지리산 빨치산들이 죽으면서까지 부르짖던 바로 그 언어와 행동이었다.

교단은 꿈과 사랑과 우정이 가을을 향해 곱게 익어가는 곳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미군철수를 외치는 전교조 노동자들이 사는 ‘해방구’가 되었다.

VII. 결론 및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허리띠 졸라가며 먹고 입는 것을 아끼며 기술을 익히고, 중동의 뜨거운 열사(熱沙)의 사막과 독일의 탄광에서 노력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누구는 이 모든 결과를 노동자의 피와 땀이라고 하였지만, 그 시절을 이기고 일어선 노동자 농민들 중엔 지금 기업가도 자본가도 얼마든지 있다. 노동자로 일어나 대기업의 회장이 된 이들도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는 장점이다.

노동자가 영원히 노동자로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논리이다. 나는 내 제자들을 노동자로 기르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장인정신을 갖춘 인격체로 기를 것이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꿀 예술가로 과학자로 만들 것이다. 농민의 길을 가리키면서도 나는 꿈을 꾸는 농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지지하여 오늘날 보안법마저 위태롭게 되었는가. 교육은, 우리 자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하여 나라는 어찌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공산(共產)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한다. 어른이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사회,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그 가치를 빛내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한다. 김정일 왕국에서 노예로 사는 2500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이 추진하던 교육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왜 노스승들이 나이 든, 봉급만 많이 받는 노물(老物)로 취급되면서 불명예를 안고 쫓겨나야 했는지, 왜 그 자리에 한총련 계열의 주사파 아이들이 대거 진입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하여, 전교조 이후 우리 아이들은 군대마저 가려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양심은 말하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대의(大義)를 추구하지 않는다. 적은 있으나, 우리 청소년들은 적과 싸우기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아래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던 적과 맞아 싸워 나라를 지켜왔다. 그러므로 절대의 가치는 애국이었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단엔 이러한 가치가 사라지고, 나라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심어지는가 하면, 적과 우방을 바로 보지 못하는 혼동이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다. 바로 북이 의도하는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민주를 위해, 내 삶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나라와 겨레 나의 후손을 위해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하여 좌익정권은 교체되어야 하고, 자유민주는 영원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전교조

이 평 기 (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전교조

이평기(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이평기입니다.

저희 학교가 속한 한광재단에는 남자-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학교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고 소속은 달라도 한 식구처럼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모두 비리 없는 깨끗한 사학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전교조가 생긴 이후 학교는 겉잡을 수 없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관한 기사는 언론과 방송에서 13번이 넘게 보도되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 비리사학의 대표로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전교조와 연대하여 소위 ‘공동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저희 학원을 공격하는 단체는 24개가 넘습니다. 그럼 자부심 넘쳤던 한광학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비리사학으로 전락해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여름방학 중에 단행된 교감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전교조 한광분회는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단지가 뿐려지고, 집회가

열리고, 과격하고 선정적인 구호를 적은 피켓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당황하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해 3월 초 이미 전교조에서 저희 학원을 인사위 투쟁을 위한 거점학교로 지정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전교조가 1년여에 달하는 300일 투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인사 불만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전교조에 의해 고소, 고발, 진정, 민원이 이어지고 수차례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학교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해 갔습니다.

반면, 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측의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전교조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고, 2002년 12월, 주동자 5명이 1인당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전교조는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였고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얼마 뒤 2004년 2월, 저희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 한광분회 단위학교 대표를 맡고 있던 모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차안에는 특별활동을 위해 인솔한 학생들도 동승해 있었습니다. 해당교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되었고 분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징계에 불복한 해당교사는 교육부 재심소청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교와 교장선생님을 비난하는 글이 수없이 게재되었습니다.

‘대가리들을 쓰레기통에 처넣읍시다. 짓이겨 처넣읍시다. 교문 앞에 모여서 타격합시다.’

교사가 썼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의 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욕설에 대해 사이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작성자는 전교조 교사였습니다. 이 전교조 교사 역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징계를 받으면서 전교조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학교는 국정감사 기간 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의해 5년간의 학교와 재단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때 자료작성을 담당했던 행정직원의 어이없는 실수가 재단의 회계조작의혹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존기한 5년의 회계서류를 3년으로 잘못알고 소각한 사건은 학교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신임 행정실장이 부임하기 바로 1~2개월 전 3년에서 5년으로 보존기한이 변경되었으나 신임 행정실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3년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소각된 자료는 거래 은행 전산망을 통해 다시 복원되었고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자료였지만 전교조는 ‘회계 비리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희망조사를 받아 실시한 전보발령도 부당전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학교 급식업체인 에버랜드가 경제 곤란자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무료급식도 반대했습니다. 대신 단가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학교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담당자와 교장선생님은 전교조와 교육청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이용한 전교조의 공세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대한민국 대표 비리사학으로, 사학법 개정의 명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지난달 통보된 학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학교가 신청한 ‘천막철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도 전교조가 학교 안이나 학교 경계 50m 이내에서, 또 인터넷 상에서 앞서 제기한 내용의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넘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동안 저희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고, 학생들은 지원을 꺼리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자부심을 잃었고 재학생들은 학교를 수치스러워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비리로 얼룩진 학원’으로 학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과 자유게시판 욕설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재심소청위원회를 통해 모두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교조는 비리의혹을 빌미로 농성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농성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를 분란에

빼뜨린 목적은 학교에 비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교조식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 속에서 많은 동료교사와 학생들이 상처를 입고, 학교가 망가지고,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소중하게 지켜졌던 가치들이 파괴되어도 다 참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교조의 막가파식 행태가 진행되면서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많은 교사들이 분노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견디고 참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전교조는 성역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그들의 뜻대로 장악하려는 의도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교조가 분란을 일으키기 이전의 정이 있고 인간미 넘치던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비교육적 사례

조 진 형 (학부모)

전교조 교사들의 비교육적 사례

조진형(학부모)

I. 좌경·반미 이념교육 사례

1. 국군이 광주시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5.18 계기교육시간에 사회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광주 사태관련 동영상의 잔혹한 장면을 보여준 후에 탐구과제 숙제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조사해오라고 함

=>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반미의식을 고취

2. “6.25때 미국이 없었으면 통일될 수 있었다”

6.25 계기교육 시에 6.25때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시킴으로써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미국을 통일의 방해꾼으로 매도하고, 김정일 정권과 북한동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맹목적 민족의식을 고취

3. “효순, 미선양 장갑차 압살 사건”

미군 범죄와 관련하여 주요사례중의 하나로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고를 “압살”, “깔아죽인”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반미감정 촉발시키고, 학생들에게 끔찍한 현장사진을 보여주고, 촛불시위에 참석하거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조사해오도록 강제(서

해교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계기교육조차 없었음)

4.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은 이라크 인들의 정당한 항거다. 오히려 미국이 테러집단이며, 이라크 인들이 미군에 대한 공격이 테러라면 안중근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사건도 테러 사건이다” (서방 국 민간인, 김선일 피살사건 언급 회피)
5. “6.25때 남한의 피해보다는 북한의 피해가 더욱 컼고, 미군과 국군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다”
6. 전방에서 복무하던 박모 병장이 제대를 며칠 남겨놓고□□금강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말 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국가보안법 회화화)

II. 가치관 왜곡 및 비교육적 언행 사례

1.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권력 앞에 순응하고, 부당한 것을 애써 참으면서 타협하는 법을 배워나가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또 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워도 매번 패배의 경험만을 쌓은 채 사회에 나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 상습적인 학교 시설파손을 막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행동환경이 아닌 외곽용 CCTV설치를 놓고서 마치 그런 결정을 내린 학교장을 “권력”으로, 그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하고 그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타협하는 법”으로, 교육 현실적으로 부적당하여 학생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패배”로 표현 (안산 송호고등학교 윤우은진 교사/ 학교시설보호를 위해 건물외곽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2. “선생님이 5.18 사건 조사해오라고 숙제 내 준 것을 어떤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서 숙제 낸 것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해당학생만 빤히 쳐다보면서 심리적 불안감 조성
=>사회과 교사가 학교장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비인가 동영상CD를 정교교과시간에 틀어주고, 5.18때 국군이 광주시민을 어떻게 얼마나 죽였고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숙제를 낸 것에 항의하자...
3. “왜 우리들을 모이게 했는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누가 했느냐?
부장선생이 공개 해명하고 사과하라”
=>학부모들이 학년 초에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학교에

서 열면서, 담임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모임을 갖자 퇴근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참석했던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면서 비난하고, 결국 며칠 후 학년부장 교사가 교무실에서 참석교사들에게 사과함.

4. “부적격교사 명단 발표한 학부모단체 임원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임원을 상대로 전교조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한 끝에 최근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 선고
5. “한겨레신문 보는 집은 똑똑한 집안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집에서 어느 신문 보냐고 과 악한 후에 “한겨레신문은 유식한 사람들이 본다”고 말함
6. 전교조는 조폭과 비슷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 단결권으로 조직을 만들고, 혼자서는 이것저것 해 달라 말하기 어려우니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떼로 가서 요구하고, 말로해서는 안되니 단체행 동권을 가지고 불쌍사납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교 조는 파업권이 없어 교육부가 겁을 덜 내지요. 조폭과 확실히 다른 점은 이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고, 공익적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면 누구나 전교조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전교조 조합원을 아무도 가입 못 시키고 가면, 혼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신규교사였을 때, 대부분 학교에 가서 적응해 보고 가입해야지 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사고하시는 것 같지만 학교에 가면 이내 교장 교감이나 부장들 눈치를 먼저 배워 어느새 가

산점 따는 일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처럼 아직 패기에 차 있을 때 가입하시면 학교 어른들도 ‘아, 저 친구는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구나.’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오늘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보너스로 참교육 달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전교조 가입원서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1 전교조 본부 교육 선전실에서 배포한 신규교사 연수 자료에서 발췌)

7. 조합원(특히 분회장 등 활동가들)은 학교 내에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문제는 교사들이 다 모여 있는 조회 석상 등에서 얘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료들의 권위주의 등은 항상 공개적, 공식적으로 깨트려 민주적인 노사 관계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민감해야 한다.

성패는 기록에 달려있다! 직원회의 등의 교장-감 발언 메모, 주요 사항 들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내부에서 비리를 폭로하는 용기가 있음에 우리 사회의 개혁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평소에 학부모와 상담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 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사시에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늦다.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는 사람, 또 금방 식었다가 금방 달아 오르는 사람, 이런 체질은 전교조와 같은 대중조직운동에는 적합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체질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과감하게 체질을 바꾸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육운동 분야에서는 다른 운동 분야에 비해 일단 발을 들여놓은 교사들은 우리 동네에서 이탈해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어디로 도망 갈 데가 없다는(?) 교직사회의 특수한 조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8. 학부모 위원과 교사위원의 밀월관계

사실 학부모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활동으로 인하여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생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약자입니다. 학부모와 교사간의 밀월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2년 전교조서울지부 여름연수자료/2001년12월 전교조 서울 지부 분회장 교원위원 합동워크숍자료에서 발췌)

전교조에 告함

김 동 렐

(전교조 비판서 ‘전교조에 고함’ 저자)

전교조에 告함

김동렬(전교조 비판서 ‘전교조에 고함’ 저자)

예나 지금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혐오스러운 그림, 광경을 어린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함은 당연한 일이고,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참견하려고 들면,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은 이런 데 오지 말고 가서 공부해라”라고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들을 어른, 그것도 선생님, 그것도 소위 ‘참교육’을 하신다는 전교조에서는 어른들이 보아도 충격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된 한 여자의 피투성이 나체 시신 사진을 중학교용 교육 자료로 쓰고도 교육자들로서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정당화 하려 애쓴 바 있으며, 또 학교에서 ‘투쟁’을 한다고 어린 제자 학생들 앞에서 자신들의 ‘험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학교를 향한 투쟁, 즉 ‘어른 싸움’에 학생들을 ‘상관하지마라’라고는 못할망정 자신들의 어린 제자들을 선동하여 자신들 전교조 편의 동지 전사들로 만들어 싸우게 하고 있으니, 과연 전교조가 교육자는 고사하고 그 이전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어른들이 맞는지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2명이 정해진 규정, 절차에 의거, 과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받은 전교조 교사들은 이 일에 항의한다고 스스로 창피한 줄도 모르는 듯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매일 보며 지나다니는 현관 복도에다 떡하니 매트리스에 이불까지 깔고 과면을 철회해 달라는 ‘단식농성’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공부를 방해하는 한편, 아무데서나 먹고 자는 노숙자, 부랑자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선생님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참고자료 1, 윗 사진]

결국 이들에 대해 법원은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젠 학교 앞에다 아예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 버티기를 했습니다. [참고자료 1, 아래 사진]

이렇게 되니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오가는 어른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거꾸로 저만 알고 학생은 몰라라 하는 한심스럽고 모자라고 못된 사람들로 인식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교조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전교조로 인해 전교조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아무 죄 없이 속칭 ‘도매금’으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심을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언행까지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판에 9만 전교조의 대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해 학교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과면 징계 받은 전교조 선생님들을 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끝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시기를 바란다”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전교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학교 학부모들은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들로서는 사상 유래 없는 망신살로, 이러다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선생님 망신은 전교조가 시킨다’는 새로운 속담, 유행어까지 등장할 판입니다.

파면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심위원회 등, 적법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흉한 방법을 동원한 행동으로 스스로 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된 일입니다.

초중고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소위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가 하는 일들이 이지경으로 못쓰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모씨를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기용한 일을 비롯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교조가 줄기차게 ‘투쟁’해 왔던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를 시키고,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교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2004년에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合憲)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고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한마디로 ‘교육은 생각 않고 인권만을 본’ 외눈박이식의 시각으로 판단하며, 진정 정치권에서 우리 교육을 위한다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외눈박이식 권고에 대해 무언가 답을 했어

야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세상일을 ‘인권’만을 기준으로 보기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권고를 남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추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정치권에서의 그러한 반응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라는 일개 노동조합을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현장은 교육 본래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 이념전장화, 정치판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 나라 초중등 공교육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이 전교조합의 존재 의미 자체와 그 하는 일들에 대해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평범한 학부모로서, 2003년 충남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 전 교장선생님의 불행한 자살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실감하기 시작한 이래, 이어지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가투쟁 문제, 팔레스타인 아이를 이라크 아이로 둔갑시키는 등의 교육 사진 자료까지 조작한 [참고자료 2] 이른바 ‘반전평화공동수업’ 문제, 전교조의 민노총 동조파업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적인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행태, 그리고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의 장기 투쟁 등등 전교조 문제를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이 전교조 문제는 어느 일부 선생님들의 ‘노동’ 문제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최상위의 중대한 문제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훌쩍 캐져버린 전

교조의 문제를 그 존재의 합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이제는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실천 방법으로는 전교조 본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전교조와 맞싸우고 있는 학부모 몇 분들의 빼어난 글들과 함께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일개 학부모 자격으로 ‘전교조에 告함’(뿌리출판사)이라는 책을 2004년 12월에 발간하게 된 바 있습니다.

금번 발표는, 줄저 ‘전교조에 告함’의 구성에 기초하여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합니다.

[I . 교단의 ‘터미네이터’]는 전교조의 학교 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 당사자로서의 문제

[II . 학생들은 도구인가]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자신들의 투쟁, 이념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

[III . ‘참 이상한’ 노동자들]에서는 전교조의 ‘공무원+ 노동조합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I. 교단의 ‘터미네이터’

2003년 4월4일, 충남의 보성초등학교라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자신들 전교조의 일도 아닌, 한 기간제 여교사의 ‘차 시중 문제’에 대한 인터넷 투서를 근거로 전교조가 당해 학교 교장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공공 언론까지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조직적으로 협박적인 언행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직후 당해 교장 선생님은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보성초 서 교장 자살사건은 故 남상국 대우건설 전 사장의 한강 투신자살 사건과 그 과정이 닮아 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행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식으로 정작 인사 청탁을 위한 돈을 받은 자신의 형 노건평씨는 ‘主格’이 아닌 ‘目的格’ 인물로 비켜서게 하면서 그 잘못을 희석시키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며 범죄자로 모는 논리를 편 발표를 한 직후, 고 남상국 대우건설 전 사장은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을 결행한 사건과 닮은꼴인 것입니다. 즉, 노 대통령이 남 전 사장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존심과 명예심 등 자신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모멸감으로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예, 인격을 소중히 하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전방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 교장 자살 사건은 남 전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사건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른바 '인격살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교조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개입하여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졌건만 전교조는 '일부 보수 언론' 등의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을 뿐, 교육자들의 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죄',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전교조는 이제 아무 것도 아닌 일까지도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조직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압박하는, 학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터미네이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전교조 조합원 숫자가 적은데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만, 핵폭탄이 그 크기와 무게가 작고 가볍더라도 폭발시의 파괴력은 가공할만한 것과도 같이, 전교조의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의 이익이 걸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민하게 그 기동력과 조직력으로 그리고 합법화 이전부터 오랜 세월의 '투쟁'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동원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지부 정도가 아니라 전국 본부 차원에서 투쟁에 나서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아무리 소수라 하여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결국 '9만대군'이라는 거대 조직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형국입니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IMF 국난을 맞아 구조 조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 과정에서 노측 대표인 민주노총의 제시한 ‘조건’이었던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정작 참여하고 심의해야 했던 교육위원회는 법안 심의에서 빠져버리고) 국회노동환경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특별법)을 통과시켜 합법화된 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전교조는 9만 조합원이라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북한의 인민위원회 조직과 유사하게 짜여진, 각 조합원들마다 ‘할 일’이 부여된 이른바 ‘완장식’ 조직 체계, 게다가 민주노총 산하로 있으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권력과 동지로 이념과 행동을 함께 하는, 초중고 교단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각 초중고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은 학교 직제로는 평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과 대등한 위치를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반 기업이나 공장에서의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인 대표이사를 상대하듯이 학교의 ‘교육노동자’들의 대표인 전교조 분회장이 학교장을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대립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전교조와의 관계가 각각 이렇게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체적 이유는 ‘전교조 분회장의 역할’이라는 전교조의 문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동 문건에서 전교조는 교장을 상대하기를 ‘기본적인 노-사 관계의 구도 하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특히 분회장 등 활동가들)은 학교 내에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될 수 있는 한 교사들이 다 모여 있는 조회 석상 등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깨트려 민주적인 노사 관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하

는 것을 기본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를 노사 대립 구도의 투쟁의 장으로 보고 교장 등 ‘使’측의 부정, 비리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함을 기본 행동 수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의 인격적, 권위적 측면은 배려할 필요 없이 교사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로하는 것을 ‘민주적인 노사 관계’의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이렇게 하는 이유의 표면상 목표는 ‘학교 민주화’ 또는 ‘평등한 교단의 구축’입니다. 전교조는 지금의 학교가 교장의 비민주적이며 독선, 독재적인 운영으로 인해 ‘학교 민주화’가 안 되고 이것이 교육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매도합니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사용자’의 부정, 비리를 캐내는 데에 대단히 많은 힘을 쏟습니다. 한편,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교장을 교사들끼리 ‘민주적’ 직접 투표로 임기제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약칭 ‘교선보’)로 바꾸자며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정치판이 아닌 이상 학교 경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교장이라는 자리를 능력과는 관계없이 인기몰이, 세몰이로 투표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선상의 판단으로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전교조가 학교에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선배 교사들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무례와 하극상은 이제 학생들도 따라 배울 정도로 반교육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도라 합니다. 근거 없는 인터넷 투서와 고소 고발을 자주 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보다 노조 방침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징계 불복, 학생들을 '동지'로 이용하여 선동하고 투쟁에 앞세우는 행태 등등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상호 반목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봉괴시키는가 하면, 순수한 학생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며 학습권을 침탈하는 등의 매우 부정적인 교육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 모인 곳에서는 흔히 그렇듯이, 학교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지, 전교조처럼 처음부터 교장선생님과 대립각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방침대로 하다가 과거의 예처럼 충분치 않은 구실로 학내 분쟁 분규를 유도하려 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학교장, 학교 측의 권위뿐만이 아니요, 거꾸로 전교조가 더 학부모들 앞에 당당하게 설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로, [참고자료 3]은 한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교조>하면 생각나는 것은?”이라는 설문투표 결과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은 전교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항목별, 성별, 연령별로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전교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참교육’, ‘부패 청산’으로 답을 한 사람들은 전체의 35%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 외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교조를 주로 ‘학생불모불법시위/투쟁’하는 곳(55%)이라는 의견을 비롯, ‘교사가 아닌 일반 노동자, 대안없는비판단체, 정치단체, 삭발 그리고 단식’에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한다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랍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물론 이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만)

로 과거 비합법 시절에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적인 평가와 합법화 이후 교단의 ‘터미네이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막강해진 오늘날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을 전교조 스스로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좀처럼 자기반성의 면모를 보이지 않는 전교조는 국민들의 이러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2003년 예산 보성초 서 교장 사건과 2004년 인천의 모 고교 사태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자기반성 대상으로 삼고 교육자들로써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설 데 안 나설 데를 우선 잘 가릴 것이며, 집단의 물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들 학부모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할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폐습을 버림으로써, 선생님들을 더 이상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를 지식이라는 품을 팔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노동판’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내고, 선생님들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출퇴근했으면 하는 것이 아마도 이 나라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I. 학생들은 도구인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데에는 전교조의 상징인 이 '참교육'을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전교조가 '참'이라는 善개념의 말을 선점한 '善독점 용어'일 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참된 교육'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참된 교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민주노총을 상부기관으로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하나의 교육 이념을 하나의 좋은 말로 표현한 '교육 브랜드'의 하나인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교원(교사)만이 가입 가능하므로 '전국교원노동조합'이라고 명명해야 맞으며, 약칭 역시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아닌 '전교노'라 해야 더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교조가 그 조직, 활동 내용 등을 따랐다는 일본의 '일교조'는 '일본교원조합'의 준말로써, 일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그냥 일반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그 줄인 명칭을 '전교조'라 한 것이 남을 속이거나 혼혹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연이나, 당시 생각이 깊어서, 혹은 실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국교원노동조합'에, 이를 줄여 '전교노'라 제대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교육’이란 어떤 것일까요?

전교조가 2002년 5월 15일 선포한 14개항의 ‘참교육 실천강령’을 보면 귀납적으로 참교육이 어떤 것인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교육 실천 강령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 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돋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돋는다.
1. 우리는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그 ‘실천 강령’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민주노동당 강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강령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해설은 인터넷주소 <http://cafe.daum.net/mymykorea> 의 [전교조에 告함 게시판]에 별도로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실천 강령의 ‘참교육’으로는 우리나라와 학부모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교육이 아니라 전교조와 그 上部 ‘同志’인 민노총, 민주노동당이 바라는 형태의 교육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참교육’의 결과는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 ‘참교육’이야말로 전교조의 존재 필요성을 재고해 보아야 하는 명백한 근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교육’은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이라는 3대 이념적 과제를 둔 교육인바, 그 실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 참여의 중요성을 밝힌다는 목적의 ‘총선 수업’(실제로는 보수정당 반대 교육)은 ‘민주교육’이 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통일 교육’(실제로는 반미친북교육)은 ‘민족 교육’이 되며, 노동계의 실태와 노동자의 권리 등을 가르치는 ‘노동 교육’(실제로는 ‘親민노당’ 교육)은 ‘인간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이념적 과제의 결과물인 ‘참교육’을 ‘가치지향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가치를 택해서 그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교조가 특정 이념의 노동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즉, 특정 이념의 입장에 서 있는 가치관은 일반적인 그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전교조는 노동자

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그것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존립 목적인 민주 노동당과의 동지적 입장에서 이른바 ‘가치지향’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라는 전체 국민 중의 ‘少數’가 지향하는 가치일 뿐입니다. 즉, 전교조의 ‘참교육’은 대다수의 국민과 국가가 동의한 가치가 아닌 것이므로 ‘가치편향’의 常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동지’라는 용어까지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동지’라 함은 학생을 교사와 같은 입장으로 임의 간주하여 학생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로, 전교조가 학생들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긴밀히 결합’하는 관계를 갖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교조 선생님 동지’와 ‘학생 동지’ 間 목적과 결합의 형태입니다. 즉, 스승과 제자, 평가하는 입장과 평가받는 입장, 성인과 미성년이라는 결합으로 이미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즉, 같은 ‘동지’라고는 하나 이념성이 강한 노조인 ‘전교조 선생님 동지’에 의해 그 ‘목적’이 정해지고 ‘학생동지’는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도구나 ‘총알받이’로 사용될 뿐인 것인바, 이미 현실로 학교 안팎에서 각종 시위나 집회, ‘투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대신 어린 학생들이 투쟁가 부르고, 구호외치고, 심지어 전교조의 교육청 앞 시위에 전교조 조합원들과 함께 모여 조합원들 앞에 서서 춤과 노래를 하며 투쟁을 격려하는 치어리더 역까지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전교조 때문에 마음 놓고 학교도 보내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점점 높아지는 恨聲은 이유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이상을 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배움에 힘을 쏟아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가치편향교육으로 특정 이념에 물들게 하고 어른들의 ‘추악한’ 세계를 미리 들여다보게 하며 투쟁심, 증오심으로 현실 참여를 권하는 일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절대적 위상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 사상을 주입, 세뇌시키면서 그 순수성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교육행위가 ‘참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마땅한 ‘反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反교육’을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못하게 하는 문제는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교조의 교육부와의 ‘투쟁’ 결과, 교사가 ‘왕’이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실 안에서는 교장선생님이라도 수시로 감독, 장학차 교실 참관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초등학생을 상대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이라크 전쟁 퀴즈’ 수업으로 어린이들이 전교조의 사상, 이념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가 하면, 부적절한 교육자료 채용에 심지어 사실을 조작까지 한 교육 자료까지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APEC 바로알기(실제로는 반대) 공동수업’은 반미 편향, 자국 비하 내용도 문제거니와 저질 폭력적 언어, 그림을 사용한 ‘흥미로운’ 동영상 교육 자료로 학생들의 말초신경에 호소하면서까지 전교조가 의도하고 지향하는 방향대로 가르치려고 한 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업을 하는 교사가 한쪽에 치우친 사상, 이념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우리나라 전체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교조가 민노총, 민주노동당에 종속되어 있

는 잘 조직되어 있는 대규모 이념성 노동조합으로 존재하는 한,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내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수업 내용에 대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교조의 ‘투쟁’의 전리품인 ‘교사 자율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인 수업계획서나 교육자료 등의 결재 제도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수시로 교실을 참관하고 수업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참교육’이라는 특정이념교육, 가치편향교육의 수렁에서 벗어나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것입니다.

III. ‘참 이상한’ 노동자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교사노동운동에서 교사가 노동자인가 공무원인가의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7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IMF 경제난으로 노사정 합의 도출 과정에서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버리니, 그 논란의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즉, 교원노조특별법이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하고 입법되었으니 이는 ‘公人’인 교육공무원 교사에게 ‘私人’으로서의 노동자라는 2중의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해 주기에 이를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일반적으로 균형 관계를 이룹니다. 권리가 많으면 의무도 많아지고, 또 권리가 적어지면 의무 역시 적어지는 것이 公平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조합원의 경우 권리 측면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私人인 노동자로서의 권리 역시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의무 측면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私人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의무 준수의 범위와 그 내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로는 주로 전교조라는 노조 조합원의 권리하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준수 강제력은 약해져서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 누릴 권리가 많고 지켜야 할 의무는 적은, '권리의 비대화와 의무의 왜소화'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교조의 모습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의 가능성은 살펴보기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그러나, 전교조의 경우는 공무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임의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는 ‘역차별’, 즉 특혜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국민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전교조의 존재는 헌법과 그 하위법이 서로 이율배반으로 탄생된 것으로, 현실적인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한 결과물입니다.

즉, 헌법 제7조에서,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그러나 공무원이면서도 교원노조특별법으로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들로써 ‘노동조합’을 합법화시켜주었으니, 헌법상의 ‘봉사’의무와 교원노조특별법으로 부여된 ‘배타적 이익추구’권리가 상충하므로 전교조는 그들이 헌법상의 ‘봉사’의무를 방기하였을 때에도 ‘이율배반’으로 이를 단속하기도 힘든 사회적 특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기 조항 뿐 아니라 헌법 제 31조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지으면서 교육이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처구니없게도 교원노조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전교조가 민주노총 등, 상부단체 전교조 설립 근거법(교원 노조 특별법)에서 전교조가 상부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이에 따라 전교조는 우리나라 정치단체 중의 하나인 민주 노동당의 모체인 민노총의 산하조합으로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노총 산하의 전교조로서는 국내외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파병반대, WTO 개방반대, 사학법 개정, 심지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표명에 이르기까지 전교조의 모든 이념, 정책과 주장 하나하나가 민주노동당과 일치한다는 점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개폐하는 국회에서는 헌법, 교육기본법과 교원 노조 특별법간의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법률의 이율배반적 요소를 해소하는 노력을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교사들이 '노동자'라고 주장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잠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君師父一體.

예로부터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 동격으로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임금이나라를 다스리는 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과도 같이 무한한 사랑과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기희생을 해야 할 자리에는 노조의 이름으로 무한한 투쟁과 이기적 탐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사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존경의 가치가 없는 대상으로 만든 결과 이 땅에서 스승의 절대적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의 '사랑의 매'조차 '교사폭력'으로 몰아서 어린 제자들과 학부모들이 고소고발을 일삼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으니, 이러한 사회 현상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 우리나라 사회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교조가 각종 '교육노동자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는 실로 눈부신 것들이었습니다.

출근부도, 주번근무제도도, 교통지도도, 전국단위 일제 시험 제도도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아니하니 '교육 노동의 質'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편한 노동자 생활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간은 교육공무원 기준입니다. 언제나 떳떳하

게 정시 ‘칼퇴근’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았습니다. 방학 때에는 교장 교감 눈치 봄가며 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정치행위들도 대놓고 해도 팬참을 것 같은 분위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가히 학교가 ‘교육노동자’의 천국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노동자’의 천국이 되면, 교육도 국가 미래도 망한 것입니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이 전교조라는 ‘든든한 뼈’이 있음으로 해서 ‘노동의 질’은 걱정할 필요 없는 노동자들이자, 하늘이 무너져도 때 되면 봉급 받는 이른바 ‘철밥통’ 공무원들로 학교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교사들이 노력할 하등의 절실함도 없는 현 제도로는 교사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바,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유명한 명제처럼 우리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질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는 국가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도 참여하는 교원평가제 등의 시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IV. 맷음말 - 교육 개혁의 첫걸음은 ‘전교조 해체’로 부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설과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배울 학생이 없으면 학교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 되는 것이며 모든 정책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모든 정책을 노동조합의 입장, 즉 교육노동자의 권리 추구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그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개혁을 가로막는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즉, 전교조는 교육부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교육 정책이나 案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상부단체인 민노총, 이념을 같이 하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교육노동자’의 권리에 보탬이 되는지 해로운지를 먼저 계산하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국가적 이익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의 예로, ‘초등학교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문제 하나를 놓고 보아도 바로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한계와 모순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들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의 학력의 현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현

재 ‘묻지마’식 사교육의 홍수는 자녀 학력의 현주소를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불안감이 그 주요 원인인 바, 일제고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력 현주소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으니 주기적인 일제고사 실시를 반기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장 역시 자신이 경영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구열 향상 목적으로, 한편 학력 수준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전략적 경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일제고사 실시를 찬성하고 있으며, 같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조합인 전교조에서만은 반대합니다.

전교조는 이런저런 반대 이유를 들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일제교사의 결과 교사 자신들의 교육 질에 대한 평가도 따르는 것이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 전교조로서는 ‘교육노동자’ 책임이 가중되고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위험성’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교조의 다른 정책들 역시 곁으로는 학생을 위하는 듯이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은 ‘육노동자’의 세상 만들기, 즉 ‘육노동해방’ 위한 것이라 보여 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보충수업, 교육개방, 교원의 지방직화, NEIS(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평가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스쿨 폴리스 등등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고 국가에 정작 필요한 것은 도조리 반대합니다. 반면, 학력 기준이 아닌 교사의 주관적 판단과 권한으로 하는 내신제 강화, 교장 선출 보직제, 사립학교법 개정, 자신들의 ‘동지’가 되어 줄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등, 교사

들의 권익이 따르고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에게 종속시키고, 교사들이 학교 권력을 장악하려는 주장만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교조 문제의 개념도, 참고자료 4 참조)

이렇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의 한계와, 정치와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원단체가 민노총, 민주노동당에 종속되어 있는 모순된 구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있어 得보다는 失이 훨씬 많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 개혁의 첫걸음은 '전교조 해체'로 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 전국민들이 나서서 그 방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1】

전교조 파면철회 투쟁의 현장!
학교 안 현관에는 선생님들의 단식투쟁 침소가,
학교 정문 옆에는 선생님들의 철야농성 천막이...
전교조의 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우선하는가?



학교 중앙 2층 현관의 ‘파면철회’를 요구하는 파면된 교사 2인의
'단식농성' 침소.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겠는가?



학교 정문 옆에 설치한 ‘철야농성’ 천막. 민주노총이 걸어 놓은 노란 현수막도 보인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학교의 안팎에서 벌려 놓은 전교조의 투쟁판. 과연 학생들은 전교조의 ‘사랑’의 대상인가 ‘투쟁’의 볼모인가?

【참고자료 2】

완벽하게 똑같은 두 장의 사진!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라크 어린이로 둔갑?
누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 ohara님의 ‘전교조의 엉터리 교육자료 공개’ 중에서 -



걸프전때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 ↪

THE ELECTRONIC INTIFADA
INTRODUCTION | THE MEDIA | EI WIRE | REFERENCE LIBRARY | FOR JOURNALISTS | FOR ACTIVISTS | CONTACT
SEARCH | LOGO

AGAINST THE ISRAELI MACHINE

The way some "Middle East experts" talk on TV, you'd think this refugee camp child was Israeli and the tank was Palestinian.

PHOTO BY MUSA AL-SHAER

INTRODUCING EI
The Electronic Intifada (EI), found at electronicintifada.net, publi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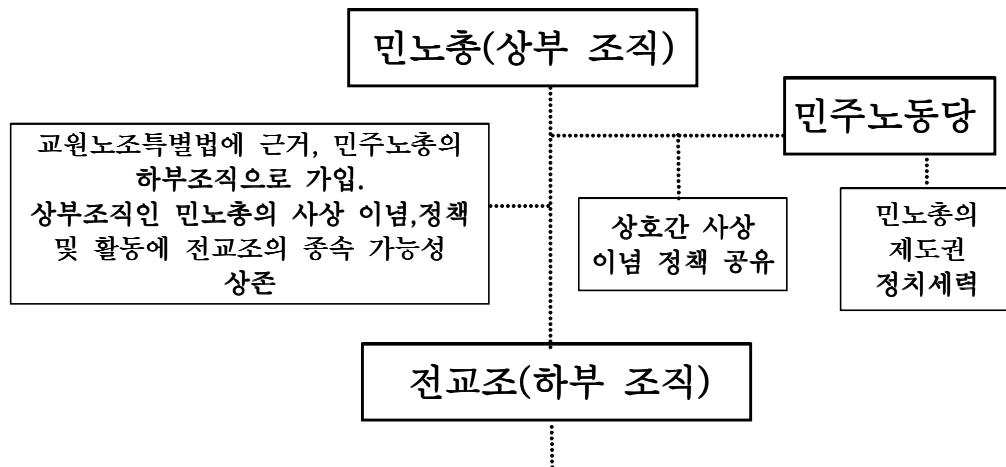
CURRENT FEATURES
ESCAPING WHAT

WHAT'S NEW ON EI?
• Human Rights: [On learning](#)

위의 사진은 (1991년 미국과 이라크가 벌였던) 걸프전 때 (미군) 탱크에 돌을 던지는 (이라크) 아이라는 뜻의 사진으로 전교조의 ‘반전평화공동수업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Musa Al-Shaer가 2002년 6, 7월 경 베들레헴의 데이샤 난민촌(Dheishah Refugee Camp)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 속의 탱크는 이스라엘 탱크이며, 어린이는 팔레스타인 아이.
이 사진의 원 출처는 www.electronicintifada.net 이다.)

【참고자료 4】



구분	對 학교 문제	對 학생 문제	對 국가 사회 문제
핵심 내용	교단의 '터미네이터' --> 노사 대립 구도화 설정으로 인해 교육공동체구성원 간 갈등 심화, 이로 인한 '교단붕괴'와 교권 추락 현상의 가속화	학생들의 '도구'인가 --> '학생동지'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의 이념, 사상, 이익을 위한 '투쟁'의 도구화, 반교육 현상의 심화	'참 이상한' 노동자들 --> 국가공무원이자 민노총 산하의 노조로,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 아울러 의무는 적고 권리만 많은 사회적 특수계급화
대표적 문제 사례	● 2004년 4월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서 교장 자살사건 ● 2004년 인천의 모고교에서 전교조 조합원 파면으로 인한 '투쟁'으로 학내 분규 사태의 장기화	● 2002년 윤금이씨 시체 사진 자료 교육사건 (SOFA교육) ● 2003년 반전평화운동 수업, 반미편향수업, 자료조작 물의 ● 2004년 '학생동지' 용어를 사용시작. 학생들을 직접 전교조와 함께 투쟁토록 선동 ●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수업 ● 2005년 APEC 바로 보기 공동수업(저질자료, 편향수업 물의)	● 2003년, NEIS(교육 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투쟁 ● 2003년 반전평화촛불시위를 민노총 등과 함께 주도 ● 멕시코 칸쿤 WTO 세계 각료 회의에 민노총 투쟁단의 구성원으로 20명 원정 투쟁 ● 2003년 민노총파업에 동조참여 ● 2004년 '탄핵무효' 선언 ●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 공개지지
● 2005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향후 예상

김 모씨를 기용한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이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일개 전교조라는 노조 측의 정책논리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2005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전교조가 추진해 온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킴.
이를 재개정 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들이 일부 교원노조 및 공권력 앞에 무력하게 되어 향후 사학의 건학이념,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예견됨.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교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2004년에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合憲)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은 생각 않고 인권만’을 본 외눈박이식 ‘권고’를 하였음. 이 권고에 근거하여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그러지 않아도 고도로 정치화된 교사들이 더욱 더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 이념 편향교육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본래의 교육자로서의 사명, 임무의 수행을 더욱 더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교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파괴시키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음.

부 록

【부록1】 전교조의 편향적 교육 지침 및 내용

(출처 : 전교조 교사용 지도서)

3	X. 대한민국의 발전 3.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주제	10 32.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1.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배경은 무엇인가? 2. 북방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탐구활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에 대하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金日成 1912~1994].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현 평양시 萬景臺區域) 출생. 본명은 성주(聖柱 또는 成柱). 북한 정권수립 이전인 1946년부터 사망 시까지 49년간 최고지도자로서 사회주의의 변형인 유일체제를 고수하였다.

1920년 무렵 부모를 따라 만주 파다오거우[八道溝]로 가서 초등교육을 마쳤고, 지린성[吉林省]의 유웬중학교[毓文中學校]를 중퇴하였다. 29년 무렵 동만(東滿; 당시 간도지방) 공산주의청년동맹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31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32년 안투현[安圖縣]에서 항일유격대원으로 활약하다가 34년 중국공산당의 동북인민혁명군 제 2 군 독립사에 들어갔다. 35년 김일성으로 개명하고, 36년 동북인민혁명군 제 2 군 독립사가 항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일환으로 동북항일연군 제 2 군으로 재조직될 때 정치위원으로 선임되었다. 37년 6월 그가 지휘하는 6사 병력 100여 명이 조국광복회 국내 지하 조직과 연합하여 함경남도 보천보(普天堡)에서 일본경찰 주재소를 습

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40년 3월에는 백두산록 홍치허[紅旗河]에서 일본경찰토벌대 180여 명을 전멸시켰다.

41년 유격대원들과 함께 소련으로 가서 청년간부훈련을 받고 45년 소련군 소좌가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점령정책이 시작되자 입북하였다. 이어 기존세력이던 국내파·연안파에 대한 우위를 장악, 46년 2월 내각 성격을 갖는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어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내각수상이 되고, 49년 남북 노동당을 합당하여 조선 노동당을 결성하여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50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6·25를 일으켰다.

53년부터 원수(元帥)·영웅 칭호를 사용하면서 박현영(朴憲永)의 남로당파, 김두봉(金斗奉)의 연안파, 허가이(許哥而)의 소련파를 숙청하여 권력체제를 구축하였다. 60년대 초반부터 <주체사상>을 국가이념으로 정착시키며 중국·소련에 대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

70년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되었고, 72년 헌법개정으로 국가권력 구조를 국가주석 중심체제로 바꾼 다음 국가주석·국방위원회위원장에 취임하였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80년 남북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안하였다. 90년 국가주석에 재추대되고, 92년 대원수 칭호를 받았으며, 93년 국방위원장직을 김정일(金正日)에게 이양하였다.

94년 6월 카터 전 미국대통령 면담 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회담준비가 진행되던 중 7월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는 짧은 시절 항일무장

투쟁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 무시할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지만, 한국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권력을 세습시키는 등 북한사회를 사유화함으로써 저발전체제로 귀결시킨 과오를 남겼다.

▶ 김일성의 일대기를 요약해 보자.

1912년생. 20세 항일유격대원, 25세 보천보 전투, 28세 일본토벌대 섬멸, 43세 소련군 소좌가 되어 북한 지역에 들어와 49년간 북한 최고 지도자 역임, 6.25 전쟁 도발, 50년대 정적 숙청, 60년대 주체 사상, 70년대 국가 주석, 94년 남북 정상 회담 앞두고 사망.

탐구활동 박정희 정부의 경제 건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

정부가 최초로 마련한 경제 개발 계획은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 개발 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이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1 ~ 1965)을 작성하였으나, 군사 정변으로 전복되는 바람에 실시되지 못하였다. [교사용지도서 471쪽]

나) 수출의 비약적 증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3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는 175억 달러, 1990년에는 650억 달러, 1995년에는 1250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수출 주도형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

다. [교사용지도서 471쪽]

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건설에 대한 평가

박정희 정권 아래서 유지된 외자경제체제는 외채 도입과 수출 신장 을 바탕으로 공업 부문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① 종래의 소비재 생산 중심의 공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 ② 공업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문제, ③ 지역적 편중성 및 수출 공업과 내수 공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 그 구조상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문제, ④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심화되는 대기업의 독점성을 방지하는 문제, ⑤ 노동의 일방적 희생 위에 실현된 수출 지향의 공업화를 바로잡는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후의 한국 경제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죽다시피 하고, ‘문어발식’이니 하는 일종의 천민자본주의가 일반화했으며, 그 틈에 급성장한 몇몇 재벌 중심으로 정경유착의 악습이 누적되었습니다. 1990년대로 오면서 그 폐단과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나 ‘IMF 관리체제’를 부르게 되었고, 구조조정이니 하는 조치들이 등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312 ~ 327쪽]

1) 가)를 참고할 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 나라의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산신령의 도움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준비된 것들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 민주당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

2) 나)와 다)를 참고할 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 건설이 이후의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수출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대외 의존성, 지역 편중성, 대기업의 독점, 정경유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및 임금격차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삼성가, 현대가의 그룹 분사 이후 또다시 여러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IMF라는 암으로 그 이전부터 키워온 것이고, 지금은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한 경우이다.

탐구활동 반공 소년 이승복의 외마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이들이 도시로 떠나 버린
경기도 가평군 골짜기 개곡 분교에는
웃자란 풀들만이 아직 깨치지 못한 한글을 외느라
공중으로 목청껏 소리를 날리고
산새들이 벼려진 꼬마 운동화 한 짹씩을 신고
가갸거겨, 지저귄다.
그러면 빼그덕,
펄럭이는 냇가에서 올라온 뱀 한 마리가
녹슨 그네를 감고 돌다
운동장 달리기 선을 긋는데
저만치, 잃어버린 신발을 찾고 있는 아이
어느 독재자가 가르쳐 준 한마디를 외면
산새들이 알아듣고 따라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밤이 되면 홀로 녹슨 철봉에 매달린
채 벼려진 학교를 떠나지 못한다.

- 전기철, ‘폐교, 그리고 이승복’<풍경의 위독>(세계사)

- 1) 시골 학교나 폐교에서 ‘반공 소년 이승복 동상’은 본 적이 있는가?
- 2) 이승복 동상을 보았다면 그 때 느낀 소감을 적어 보자.
- 3) 전기철 시인의 시를 읽고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두어 가지 적어보자.
- 4) 이승복 동상이 전태일 동상이 된 사연을 간단히 적어보자.



초등학교(폐교)를 인수해 문을 연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에 있는 이승복어린이 동상. 당원들에 의해 전태일 열사로 이름이 바뀌어 있다. ⓒ 권박효원

<http://www.ohmynews.com>

탐구활동**제3차 UN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안 (1948. 12. 12)**

UN한국임시위원회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실시할 수 있었던 남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7개국 한국임시위원회은 한국 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의 대의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며 (중략) 한국 전역에서 여행, 협의 및 감시의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위의 내용과 교과서 303쪽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다른가?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곧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합법 정부라는 얘기

이것만은 꼭 알자**▶ 미·소 공동 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

미·소 공동위원회는 왜 결렬되었다?

(소련)은 임시 정부 수립 논의의 대상으로 모든 정치 단체들의 참여를 주장하였고,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유엔의 결의로 5·10 총선거 실시→제헌 국회 구성→제헌 헌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유엔 총회의 승인

5·10 총선거는 어떻게 실시되었나?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로 치러졌다.

▶ 여중생 사망사고를 이용한 선정적 반미교육사례

“.....장갑차 조종수인 워커 마크 병장은 15 m 전방의 소녀들을 보는 순간부터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귀가 되어 장갑차를 갓길로 붙여 조종하며 소녀들을 몰아대었고 왼쪽 옆과 뒤를 살피며 가던 소녀들 효순이와 미선이는 앞서 지나가던 장갑차들과는 달리(앞서 지나간 장갑차들은 도로 중앙 쪽으로 붙여 운행하며 갓길 쪽의 여유를 남겨두고 지나갔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갓길로 차를 몰아 등 뒤로 무섭게 쫓아오는 살인귀의 장갑차를 보고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워커마크라는 살인귀는 더욱 광기 어린 눈깔로 속력을 내어 소녀들을 몰았고 장갑차에 함께 탔던 놈들-전차장과 전방사수라는 것들도 야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암목적인 교감으로 야수짓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광란의 살인귀들은 등 뒤로 쫓고-

소녀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놀라며 살기 위해 정신없이 앞으로 뛰었다. 상상해 보라. 이 광경을-

소녀들은 살기 위해 공포감으로 15m를 뛰었고 장갑차의 살인마들은 새디즘적 살인 쾌감을 즐기며 30m를 달려 덮쳤다.

..... 하판 아래서 살아서 누워있는 우리의 소녀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

나면 깨어나 제 발로 일어날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광기어린 살인마들은 장갑차를 뒤로 후진하여 본 바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소녀들을 확인하고 옆으로 전진과 후진을 하여 한번 깔고 다시 전진하여 소녀들의 배와 가슴 머리를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짓이기고 나갔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시신위로 궤도 자욱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다. 골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다. 우리의 꿈 많고 어린 소녀들인 신효순과 심미선양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소녀들이 죽음을 당한 현장 주변에는 꿈을 접은 시신과 함께 살인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간 살인마들의 발자국(궤도자욱)이 여기저기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부록2】 온라인을 통해 본 전교조 문제

■ 전교조와의 질긴 인연의 끈을 놓으며... (2005/01/04, 나의사랑 대한민국, 마이마이코리아 게시판)

어떤 전교조 선생님이 전교조를 떠나면서 남긴 글입니다.

지난 5월 28은 전교조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 때 전교조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뿌듯하고, 벅찼던 이름이었다.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참교육을 한다는 그 주장들에 나는 많은 박수를 보냈고, 함께 하였다. 특히 사범대생으로서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아픔과 노력을 지켜보았고, 군 제대후에는 상근을 2년이나 하였으며, 2000년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5년 째 00지회와 학교 분회장으로 활동을 하였기에 나에게 특별한 조직이며 단체였다. 나는 전교조 운동의 중심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 언저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 창립 15년이 되는 2004년 5월 28일 나는 이제 전교조와의 그 질긴 인연의 끈을 놓아버렸다.

전교조는 창립한 이후 교육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나 교육관료들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로부터 교육을 민주화 시킨 측면이 많으며,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을 견제하기도 하였고, 비교육적인 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여 잘못을 고친 면도 많다. 또한 참교육을 주장하여,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보충수업이나 승진제도 등 비상식적인 교육관행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보면 전교조가 교육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내가 전교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교조가 더 이상 교육의 대안세력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나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89년 전교조는 창립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교육을 참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전교조의 의지를 국민들이 지지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04년 현재 참교육과는 한참의 거리를 둔 채, 오직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채,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반대함으로써만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없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반대만 하는 전교조에게는 희망이 없다.

갈수록 전교조는 교육 대안세력보다는 교사 이익단체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해 가고 있다. 이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형식을 채택한 이후부터 예견되어 왔던 상황이다. 창립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그리 많이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조직이 확대되고, 현재 합법화 된 상황에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이 전교조의 내용까지 규정해 버리는 상황이다. 앞으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교육 개혁 방향과 교사의 요구가 대립할 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기에 오히려 반개혁의 입장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교조의 조직 운영방식이나 투쟁방식이 희망 있는 조직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단위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고 매 사업이나 투쟁을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 단위에 내리먹이기식 실천만 요구하는 조직, 조직내의

이견을 전혀 받아들일 의지도 없고 비난만 하는 조직, 극단적인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며 투쟁의 유연성을 상실한 조직 등 민주적이지 못한 요소가 산적한 조직이고 일부 비도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한 조직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그러면 전교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탈퇴를 하면 되느냐'고. 그러나 나는 한마디로 전교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부질없다고 판단한다. 전교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일정정도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현재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나 조직의 형식으로 볼 때 본질적인 변화로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교조의 문제는 현 지도부를 합리적 지도부로 바꾸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 전교조에 대해 비판적이고, 전교조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적이다. 약간의 유연성과 대중적 지향을 가졌기에 전교조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나 시대변화를 읽으면서 21세기에 맞는 교육조직으로 전교조를 변화시킬만한 능력과 시대정신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전교조가 합리적 교육 대안세력이 되리라는 희망이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서 그 내에서 전교조 변화를 위한 노력은 삶의 낭비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오히려 다른 방향에 정력과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에도 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시대는 지식정보화, 민주화, 세계화, 자유화 등으로 집약되는 문명사적 대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 이념, 정책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국가나 조직, 개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분야에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육현실을 실사구시하며 연구하고 그 대안을 찾는 일에 나의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 싶다.

전교조를 탈퇴하는 날 나는 10 여년 피워오던 담배를 끊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더 독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현직 교사가 북한 통일노선 선전(전교조)

(2005/01/06, crow364, 마이마이코리아 게시판)

현직 교사가 홈페이지에서 북한 통일노선 선전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

「군자산의 약속」이란?

<미군새끼들이 무죄 평결한 그 날은/ 미국새끼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테러를 한 날/ 아니 그 미군놈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럼 우리 효순이 미선이 잘못이란 말인가?/ 아니면 장갑차 바퀴의 잘못이란 말인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죄였다/ 식민지에서 미국 놈들 허락 안 받고/ 그 시간에 그 도로를 걸어간 죄>

(詩 「대~한민국2」 中에서)

존경과 신망의 지도가 있고, 「군자산의 약속」이 있는 우리?

<이제 우리, 민족자주의 이념이 있고/ 존경과 신망의 지도가 있고/

군자산의 약속이 있는 우리가/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 이 어둔 세상의 대안이 되고/ 민중들의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6·15공동선언을 바닥에 깐/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 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그리하여 농민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이 되고/ 청년학생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주인되는 세상은/ 어떻게 이를 수 있을까/ 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진실로 목숨까지 포함하여 >

「민족자주의 이념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요지의 이 글은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申모씨(46)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詩다. 제목은 「군자산의 약속」이다. 위의 詩는 그가 지난 1월에 펴낸 詩集(시집)의 제목이기도 하다.

公職(공직)에 있는 月刊朝鮮의 한 독자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교사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글을 쓰고, 공개할 수 있느냐』며, 이 詩를 제보해 왔다.

申씨는 「군자산의 약속」이란 詩에 「전국연합 결성 10주년에 부쳐」라는 부제를 달았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전국연합 활동가들이 모여 「2001년 민족 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열고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 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9월 테제」를 채택했다.

이 詩에 등장하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 등은 전국연합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전국연합은 1991년 노동·학생·청년·貧民·종교·교육·여성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재야운동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재야운동권 연합체다. 전국연합은 「9월 테제」에서 「3년 계획 아래 자주·민주·통일의 가치 아래 각계계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후 10년 안에 소위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전국연합은 6·15 선언 후 정세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각계각층을 反美 자주화 투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前 국회사무처 소속 柳世桓(유세환·39·서기관·미국 연수 중) 입법조사관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全公勞)가 조합원 교육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며 제시한 근거 중 하나가 全公勞 교육자료의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부분이었다.

● 미군새끼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테러를 한 날

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그가 그동안 써온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

고교 교사 申씨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엿볼 수 있다.

그의 홈페이지에 떠 있는 詩 「대~한민국2— 그래, 효순아, 미선아
다 너희들 잘못이야」의 한 부분이다.

<그 날 2002년 11월22일은 / 가해자가 가해자를 평결한 / 동료가
동료를 평결한, 미군새끼들이 미군새끼들에게 무죄 평결한 그 날은
/ 미국새끼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테러를 한 날 / 아니 그 미군
놈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면 / 그럼 우리 효순이 미선이 잘못이
란 말인가?

장갑차의 잘못이란 말인가? / 아니면 장갑차 바퀴의 잘못이란 말인
가? /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죄였다 / 식민지에서 미국
놈들 허락 안 받고/ 그 시간에 그 도로를 걸어간 죄.

그래 미순아, 효순아 다 너희들 잘못이야 / 식민지에서 감히 / 그
날 2002년 6월13일 / 오전 10시 45분께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을 / 미국 놈들 허락도 안 받고 걸어간 죄 /
그리하여 이 땅 식민지 한반도에서 / 식민지의 땔로 태어난 죄>

申씨의 詩와 글들을 보면, 그가 「反美감정」과 「계급갈등」이라는
잣대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증오를 부추기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승선자 2208명 중 1513명의 생명을 앗아간 타이타닉호의 비극에서, 우리는 사회계급이 생존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가라앉던 날 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계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1등칸 승객은 3%가 물에 빠져 죽은 반면, 2등칸은 16%, 3등칸 승객은 45%가 빠져 죽었다. 1등칸 승객 전원에게는 구명보트를 탈 기회가 주어졌지만, 3등칸에 있던 사람들은 일부는 총구가 겨눠진 채 갑판 밑에 그대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타이타닉호와 사회계급」)〉

● 부유한 선진국보다 평등한 국가가 최고의 건강을 누린다

<부르주아지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시켰으며, 투쟁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유 대신에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 상거래의 자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종교적·정치적 환상에 의하여 은폐되어 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부유한 선진국보다는 가장 평등한 국가가 최고의 건강을 누린다>

<가난한 나라란 인민이 잘 사는 나라이고, 부유한 나라란 인민이 대체로 가난한 나라이다. (데스튜트 드 트라시)〉

<과학적 사회주의와 결합되지 않은 노동운동은 태생적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노출되어 「노동조합적 정치」, 즉 노동자 계급의 부르주아 정치로 귀결된다.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개혁은 절대 강한 자들이 약해짐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늘 약한 자들이 강해짐으로써 이루어진다. (칼 마르크스)>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 괴한에게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申씨는 미국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 申교사는 김선일씨를 「식민지 아들」이라고 쓰고 있다.

<아, 미국의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인질로 붙잡힌 후,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목을 내리치겠다는 위협 속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떨며 울부짖다가, 결국 목 잘린 주검으로 그는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추가 파병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파견되어 있는 서희, 제마 부대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그 길만이 당신(盧武鉉)이 역사에 그래도 죄를 덜짓는 일이다. 왜 당신은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경인일보 칼럼 中에서)>

2001년 申씨는 「민족통일 대축전」의 남쪽 대표로 평양을 다녀왔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소감을 「평양일기」라는 詩로 남겼다.

● 美化 일변도의 평양紀行文

<비행기로 1시간 반 만에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네 /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여승무원이 뒤에 앉은 분부터 나오라고 했네 / 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무언가 더 질서 있고 공평한 듯한 느낌 / 순안공항도 물론 크지 않았지만 / 삼지연 공항은 마치 시골의 차부와 같은 고즈넉한 느낌이었네 / 삼지연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타고 / 백두산으로 올라갔네/ 버스 안에는 /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김정일」이라는 글이 써 있었고… (詩 「백두산」 中에서) >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특기, 적성교육을 하는 곳인데 / 화술, 태권도, 수영, 아코디언, 중창, 붓글씨, 수예반 등으로 나뉘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 인민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 남다른 재주가 발견되면 /이곳으로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데 / 「다시 만나요」를 눈물을 흘리며 불러서 / 남에서도 유명한 / 리진혁 어린이와 / 공연이 끝나고 운좋게 사진도 한 방씩으면서 / 부자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 자기가 음악과 미술에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 확인할 길조차 없는 / 남쪽의 현실이 생각났는데(詩 「학생소년궁전」 中에서)>

申씨가 쓴 詩와 글들을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洪晉杓(홍진표) 정책실장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물었다. 洪실장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사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386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전향한 후 북한 인권개선 운동과 우리 사회에 침투한 주사파의 실체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좌파들이 말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말은 「親北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런 주장을 몰래 했었는데 金大中 정부의 햅볕정책 우산에서 그동안 보호받고 자라온 親北 세력들은 현재 노골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가 死文化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는다』

- 학교 교사가 이런 글을 쓰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 교사들은 이념성이 강한 그룹에 속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려고 애를 쓴다. 특히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의 전파 자체가 자신의 중요한 활동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겠는가. 全敎組가 학생에게 反美교육처럼 특별한 정치선전을 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 申씨의 詩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 申씨의 주장은 申씨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 이미 좌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느낌을 받았다. 申씨가 全敎組 활동을 해온데다 詩를 쓰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체계적으로 좌파 이념을 공부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 군자산에서의 통일 맹세

지난 11월12일 오후 5시경 인천 모고등학교 교무실에서 申씨를 만났다.

— 「군자산의 약속」이란 詩를 보고 몇 가지 물어보기 위해 왔다. 먼저 군자산의 약속이 뭔지 궁금하다.

☞ 1990년대 말 충북 괴산군에 있는 군자산에 전국연합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때 한 약속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나.

☞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약속이다.

— 당시 군자산에는 몇 명이 모였었나.

☞ 하여간 얼마간 모였다.

—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전략 그대로아닌가.

☞ 전국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국연합 10주년 축시를 쓰면서 그대로 쓴 것뿐이다. 詩에서 말한 「민족민주 정당」은 일종의 民勞黨 같은 것이다.

—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통일이다.

— 통일이 되기 전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가.

☞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돈 없다고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한다.

— 申선생이 쓴 다른 글들을 보니 극심한 反美주의자 같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反美의식을 심어 주지는 않는가.

☞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요즘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다.

— 그런 詩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학생들이 많이 볼 것 아닌가.

☞ 학생들이 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학생들은 딱딱한 이야기를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는다.

— 駐韓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 6·25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야기하지 않겠다.

— 金日成·金正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父子가 주민 300만 명을 짚고 죽인 것을 알고 있는가.

☞ 이야기하지 않겠다.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감시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月刊朝鮮은 왜곡을 하지 않는가.

— 현직 교사가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너무 편향된 것 같아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 나는 無名 시인이다. 詩와 글은 詩人으로 쓴 것이지 교사로서 쓴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해선 답변 회피)

— 詩가 너무 親北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親北의이라기보다는 통일을 바라는 마음, 그런 詩와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 美軍은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 어렸을 때 부평에 살며 미군기지를 가까이서 보았다. 그들이 주민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고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졌다.

— 美軍이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말씀드리지 않겠다

—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는가.

☞ 대답하면 곤혹하고 왜곡될 것 같기 때문이다.

— 군자산에서 모인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는가.

☞ 만나지 않는다』

— 그때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 잘 모르겠다』

(申씨는 1989년 「전교조 사태」 때 해직되었다가 1994년에 복직했다.)

■ 네이버 게시판에 한 중학생이 올린 글(2005/12/26)

전교조, 이거 나쁜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안 찔리는거죠?

저희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이 네 분 계신데요, 다 3학년 가르치시구요. 저희 담임선생님도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중에 어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이새끼 저새끼 해가면서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찔릴 수 가있죠? 저희 담임선생님은 수학선생님인데 전

교조인데요. 수업시간에 다른 전교조 선생님 불러서 기타치고 노래를 부르질 않나... 한 시간 내내 한나라당 욕하구요. 미국 나쁜 건 아는데 수업도 안하고 욕하구요, 솔직히 수업 안한다고 좋아한 애들도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반만 정말 평균이 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괜히 앞 반 공부 못한다고 욕먹구...

이뿐이 아니라 정말 전교조 선생님이 저희 반에서 수업하실 때 다른 전교조 선생님 들어와서 놀고 그런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수업시간에 아래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전교조랑 한나라당이랑 반대인가요? 제가 중3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전교조 선생님들 이상해요. 도덕선생님도 전교조인데요, 남자분이신데요 이선생님은 도저히 선생님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갑자기 성교육 해준다고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일부러 야한얘기 막 들려주고요.(참고로 저한테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희롱처럼 들렸습니다. 남녀공학인데 여자애들은 정말 끝나고 욕 많이 했어요. 민망하게 이게 뭐냐고요)진짜 이 선생님은요 수업시간마다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45분 중 30분은 수업안하고 야한얘기, 담배를 피네마네, 아무튼 안좋은 거 다 가르치고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수업을 못 받겠어요. 민망하구.

이거 신고하면 안되요? 솔직히 전교조 선생님들 네 분끼리 모여 다니시면서 그러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수업을 제대로 안하는데, 도대체 왜 안 짤리는거죠? 특하면 수업시간에 전교조 얘기 하면서 교원평가가 어쩌구 저쩌구... 도저히 못 참겠어요.

뭐, 저야 이제 졸업이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조 선생님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 전교조반 선생님 담임되면 야자도 못한다는데... 걱정되요. 교원평가 실시 안하나요? 교원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솔직히 이런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방해만 되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답답해요...

■ "아 씨발, 대~한민국"

전교조 교사 신○○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자작시
(2006/01/14)

전교조 교사인 신○○씨(○○여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

대~한민국 1

백주 대낮에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남의 나라 장갑차에 깔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친구 생일 잔치 가던 우리 딸 효순이, 미선이
둘이 한꺼번에
미국 놈 장갑차에 깔려
두개골이 부서지고
내장이 터져서 죽는 나라,
대~한민국.

나, 초등학교 졸업장 밖에 없어요,
내가 딸의 영전에 향을 피워야 합니까, 꽃을 바쳐야 합니까,
절규하는 아버지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고도 아무 잘못 없다고,
사고를 낸 미군은
영내에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 떠들어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
남의 나라 놈이
취재 중인 우리나라 기자를
쇠사슬로 꽁꽁 묶고
온몸을 군화발로 짓밟아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 놈이 쏜 물대포에
우리나라 사람이 맞아 쓰러지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그 놈들에게
거꾸로 표창장을 주는 미친 나라,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대~한민국 2

그래, 효순아, 미선아 다 너희들 잘못이야

1편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 "지금 상태는 아주 행복하다. 할 말이 없다. 이번 사고는 나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한국은 아주 지내기 좋은 곳이다."

판사 에드워드 오브라이언 중령 "여중생들에게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면 니노 병장에게 조금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 로버트 브루턴 소령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워커가 관제병과 운전병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불가피한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급한 상황을 맞아 취해야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미 8군사령관 캠벨 중장 "공정하고 편견 없는 재판이었다. 우려되는 (한국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폭력적 시위를 묵인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미군 측 관계자 "방청을 예상해 통역사 등 전문가들을 대기시켰으나 유가족들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픔을 빨리 잊고 싶었던 모양이다."

정부 당국자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 대로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무죄평결 결과를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 "시위자들은 급진주의자들이고 아주 한줌 밖에 안 된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방편으로, 반미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좋은 꺼리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 "무죄평결을 받은 미군 2명 가운데 판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최근 전역을 신청했으며,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은 근무기간이 이미 1년을 넘어 전출할 대상이다. 이들은 이르면 금명 간 출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

2편

그 날 2002년 11월22일은,
가해자가 가해자를 평결한,
동료가 동료를 평결한,
미군새끼들이 미군새끼들에게 무죄 평결한 그 날은
미국새끼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테러를 한 날,
아니 그 미군 놈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럼 우리 효순이 미선이 잘못이란 말인가 ?
장갑차의 잘못이란 말인가 ?
아니면 장갑차 바퀴의 잘못이란 말인가 ?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죄였다.
식민지에서 미국 놈들 허락 안 받고
그 시간에 그 도로를 걸어간 죄.
그래 미순아, 효순아 다 너희들 잘못이야
식민지에서 감히
그 날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을

미국 놈들 허락도 안 받고 걸어간 죄.

그리하여 이 땅 식민지 한반도에서

식민지의 딸로 태어난 죄.

【부록3】 언론사에 게재된 전교조 문제

■ 전교조에 바란다(조선일보 아침논단, 2005/03/29)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진정 옳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도록 합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어 그 나쁜 영향력이 지대해졌으며 그만큼 우리 사회 특히 미래 우리 사회와 국가의 주역이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실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파렴치한들을 보면서 전율하게 됩니다.

고려대 영문과 서지문 교수의 조선일보 2005. 3. 28자 아침논단 칼럼을 전재하였습니다.

『교육부가 고교생들에게 주 3시간의 국사과목 수강을 필수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무릇 모든 학문은 학생의 인격형성과 생존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중적으로 밀접하게 얹힌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우리로서 우리 역사와 세계사의 큰 흐름을 모르고 세계의 무대에서 성공하려 한다는 것은 운전도 안 배우고 차를 모는 것같이 무모한 일이 아니겠는가.

역사라는 것은 단지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다.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조직사회를 이루며 살게 되었고,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환경이 생성한 인간의 의식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었고

조직은 어떻게 다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역사는 모든 인간사가 끊임없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긴 안목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적대자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역사 수강이 필수가 되면 과연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날 현역 교사 다수의 급진적 성향을 생각하면 불안해진다. 전교조 교사들이 만든 ‘이 거래 살리는 통일’이라는 역사교과서에는 해방 후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모든 구악이 해소되었고, 반면에 남한은 부패와 갈등의 온상이 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관을 가진 교사들에게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병들고 썩은 나라로 혐오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괴감, 혐오감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부 급진적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어 준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의감을 고취하며 자라서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의도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강조하겠지만, 당장 무력한 학생들은 사악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썩어빠진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냉소주의에서 폭력을 통해 무력감을 탈출하려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지난번에 TV토론에 출연한 전교조 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일진회가 친목단체인지 폭력서클인지 그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

교폭력에 대해 안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전교조 교사들이야말로 폭력서를 학생들과 대화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왔는데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식화’에 주력할 뿐,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흑백논리의 역사에서는 산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초대 대통령에게는 정말 훌륭한 점이 전혀 없었던가? 대한민국은 출생부터 저주받은 나라였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생 일제의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민족지도자인데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고 설명해주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이해하고,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지도 무조건 불신하지도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고 균형적인 분석이, 진실을 위해서 학습자의 바른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모든 중등교육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들에게 우리 역사의 불행한 부분은 범세계적으로 예외 없는 민중수난의 일부이며, 부강국·문명국은 국민의 집결된 의지로 건설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서지문·고려대·영문학 교수』

■ 전교조의 실체를 고발한다(데일리안, 2006/01/19)

현직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고 느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반교육적’ 행태를 고발하는 글이 소책자로 묶여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는 19일 “전교조에게 사학이 점령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급하게 자그마한 책자를 발간했다”며 “이 책은 전교조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사악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직접 체험한 교육자의 글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들이 전교조의 실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전교조를 접한 교사들의 시각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책자 발간취지를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전교조 한 명이 학교에 폐해를 일으킨 지금까지의 사례들로 봐서는 이번 개정사학법의 위협이 너무나 크다”면서 “그들은 충분히 학교를 장악해 좌파 이념교육과 반미교육을 주입시켜 세상을 바꾸고자 할 것”이라고 개정사학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 책자 5000부를 이날 오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도회’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이 같은 내용의 책자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책자에서 이계성 전 양천고등학교 교장은 근무하던 학교에서 전교

조 사무총장 출신 영어 교사와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3월에 부임한 전교조 교사가 바로 연가를 내더니 연거푸 3개월 병가를 내는 바람에 1학기 2학년 영어가 엉망이 되어 학부모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다”면서 “때문에 근무성적 평가를 ‘양’을 주려다가 전교조와의 한바탕 싸움이 걱정돼 ‘미’를 주었는데 1년 뒤 그 교사가 노동청에 근무평정 재조정 신청을 내고 노동위원회에 교장·교감을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근무평정 때문에 원하는 외국 유학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

그는 “1년 근무해야 할 것을 연가병가로 6개월 근무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양심인데 균형 재평가를 요구하며 교장·교감을 고발했다”며 “이것이 전교조의 단면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장이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지각·조퇴·결근을 ‘밥먹듯하는’ 전교조 국장과의 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 전교조 국장의 출근부가 문제가 됐지만 교육청 감사관이 ‘교육청과 정부도 싸워서 지는 전교조와 상대해서 싸우겠느냐, 살고 싶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포기하라’고 권유해 할 수 없이 징계를 포기했다는 것

이 전 교장은 “그 다음해에 전교조가 교육청과 맺은 단체 협약이 출근부 없애는 것이었고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출근부 없애도록 해주어 학교에 출근부가 없어졌다”면서 “힘으로 밀어부쳐 재미를 본 전교조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할 지도안을 없애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쓰는 학급일지도 없애자는 단체협약을 모두 관철시켰다”고 개탄했다.

정재학 삼호서중학교 교사는 “전교조는 교단에서 ‘참세상, 참교육’을 부르짖으며 온갖 투쟁과 고소고발을 통해 동족을 괴롭히고 있다”며 “학생들을 학생동지로 만들고 있으며 투쟁의 대열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교사는 “그들은 ‘참세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화합과 삶이 조화로운 자유민주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 사고 속에서 전사(戰士)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다!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駐韓美軍 철수 교육

1980년대 主思派, 敎大·師大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월간조선
2005.12)

全敎組(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APEC 바로알기 공동수업자료」가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全敎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APEC 관련 자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全敎組 및 산하 위원회(통일위원회 등 12개)와 지부(서울지부 등 16개)가 교사학습용 혹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작성한 이 자료들은 단순한 反美성향을 넘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및 북한 先軍(선군)정치 옹호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해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全敎組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例文(예문)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제 통일 주장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거야.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들을 위한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교양일꾼 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말살하고, 초보적인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마저 난도질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간섭과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국가보안법 수호 세력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 폭로 심판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수호세력은 역대정권을 이어 오며 온갖 反민주, 反통일 범죄를 저질렀다>

全敎組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대법원에서 利敵(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韓總聯(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으로 이어진다. 全敎組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韓總聯,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 가는 것이다.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시급히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6·15 공동선언의 기초 아래 외세와 수구 反통일 세력을 고립시키고 역사적인 6·15 선언을 사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6·15 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 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 (2004년 5월20일 全敎組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1년 5월 全敎組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駐韓美軍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全敎組의 反美성향은 「反戰평화 수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들의 反戰평화 수업은 『美 제국주의가 이라크를 공격한 데 이어 북한마저 공격하려 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민족공조에 입각한 전쟁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2003년 3월 全敎組가 「反戰평화 수업자료」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크戰 전쟁 퀴즈」는 80점 아래로 받은 학생은 「곁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全敎組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反戰평화 수업자료」의 「50問 50答」에는 「이라크戰에서 퇴각하는 이라크 군인 6000명이 미군 탱크에 의해 생매장됐다」, 「걸프戰 후 1991년과 1994년 사이 이라크에서 암 환자가 700% 늘었다」, 「UN의 경제제재 결과 1999년 10월까지 이라크人 150만 명이 죽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反戰평화 수업자료」 중 상당수는 객관적 근거 대신 교사·학생의 수기를 인용해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일부 수기를 인용해 보자.

<이 땅이 과연 뉘 땅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싸움을 만들지 말라. 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 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 (2003년 1월 全敎組 통일위원회 「문답으로 알아보는 北核 위기 본질과 反戰평화운동」, Y中 L교사)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 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강대국이라 해서 계속 오만하게 나온다면 전 세계가 미국을 증오할 것입니다> (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反戰평화 수업자료집, K中 M학생 수기)

<北에 대한 核선제공격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北核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대화를 기피하고 두 개의 전쟁 운운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민중들이 이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중한 진정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처 上同, K中 O학생 수기)

▶ 『韓美공조 깨부수고 자주적 통일하자』

全敎組의 反美성향은 감정적 수준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反美주의」다. 全敎組가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주한미군 범죄, SOFA의 불평등성, 戰時작전통제권 등 표면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같은 이데올로기적 「反美주의」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植民(식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민족공조를 통해 한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全敎組 서울지부는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중반기 사업계획(5~8월)」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고 한반도 자주통일 원년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그 밖에 더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함께 살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미국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對北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北美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全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5. 1. 30 全敎組 통일위원회, 「全敎組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韓美 군사동맹체제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 …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親美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없이 조국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6·15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공조에 힘을 넣어 외세공조·韓美공조를 깨부수고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2005년 全敎組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軍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親美 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新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 SOFA 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 … 결국 朴正熙 정권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하고 오직 미국과 매판 세력의 독재를 위해 통치하다 그것으로 인해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全敎組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북한의 先軍정치 찬양 자료 게재

全敎組는 올해 6·15 공동선언 5돌을 기념해 경기·인천·충남·경남·경북에서 전국청소년통일캠프를 개최했다. 참가대상은 캠프별로 30~80명씩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全敎組의 「통일캠프 교사자료집」은 이 캠프의 목적이 『미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자료에 나오는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의 프로그램은 6·25 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 매향리 미군기지 문제,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라크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 관련 동영상을 보여 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

면 말해 봅시다』,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미군이 판을 친다』, 『효순이·미선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등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

全敎組의 反美주의는 자연스럽게 親北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이북이 3대혁명과 先軍정치노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는 한마디로 反帝자주의 가치, 사회주의 옹호 발전이라는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이북의 가치지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북의 물리력·사상력은 전쟁 당사자인 美帝의 강대한 물리력에 맞서 「전쟁억지력 구축을 통한 정전상태 속의 평화」를 유지해 왔고…> (2005년 全敎組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사업계획(안))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 先軍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 … 이처럼 사상강국·정치강국을 바탕으로 군사강국을 건설하며 민족 전체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냈던 先軍정치로 종국적으로는 경제강국까지 건설하여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北의 노선인 것이다> (2004년 5월20일 全敎組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중 한국민권정치연구소 김서원 연구원의 「조미투쟁사」)

같은 자료는 金日成 사망과 향후 체제준속에 대한 전망에서 『金日成 주석의 서거에 대해 북한 동포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슬픔에 빠졌다』며 『아직도 金日成 주석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 있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책수행 및 지도에 대한 지지와 동의 및 집단주의 정신이 일상화되어 있는 北의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설부른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

▶ 全敎組가 보는 4·3 사건과 여순반란사건

全敎組의 親北·反美的 시각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 자료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全敎組가 지난 4월 작성한 4·3 사건 공동수업案은 『4·3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조하기보다는 解冤(해원)과 화해, 상생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자료는 4·3 사건의 본질을 가진 채 『제주도민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李承晚 정권이 反共국가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초토화 작전을 벌여 집단학살을 했다』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자료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제주 역사 이야기」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은 물론 미국과 李承晚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은 제주도민에게 몹쓸 짓을 자주 저질러 도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산으로 피한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월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고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제주도 전역에서 동시에 습격합니다. 그때가 1948년 4월3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를 4·3이라고 합니

다. …李承晚 정부는 도민들을 향해 탄압하는데 차마 글로씨는 설명 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빨갱이사냥이라는 이름하에 제주 땅 전체를 이 잡듯 불태우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4·3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다수 제주도민을 부당하게 탄압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4·3 사건은 1948년 4월3일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4·3 사건 주동자 김달삼은 같은 해 8월25일 越北(월북)하여 金日成에게 4·3 사건 戰果(전과)를 보고한 뒤 훈장을 수여받았다. 6·25 발발 후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戰死했다. 김달삼은 월북 후 각종 연설에서 『스탈린 원수 만세』를 외쳤고, 死後에는 「남조선혁명가」로서 평양근교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

4·3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에 대해서도 全敎組는 기존의 평가를 뒤집는다. 이 사건에 대해 全敎組 전남지부가 지난 9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여순사건 공동수업 자료집」은 『여순사건이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일으킨 반란이라는 기준 왜곡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는 여순사건에 대해 『反共국가의 기틀을 수립한 李承晚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 하여 全 국민들의 敵으로 규정짓고, 처단하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뇌리에 심는 데 성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주사파, 師大·敎大 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자료는 또 『반란군의 진압과정에서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운동장에 (여수) 전 시민을 모아놓고 집에는 불을 질러 시가지는 초토화되었다. … 반란이 진압되자 민간인 협력자를 색출하여 학살하였다. … 민간인 학살은 진압초기 軍과 경찰의 수뇌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全敎組의 親北·反美 성향의 교육 자료의 배경에는 물론 親北·反美 성향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1980년대 운동권 활동을 했던 이들은 이러한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키워졌다고 증언한다.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을 지낸 主思派 운동권 출신인 李東湖(이동호) 북한민주화 포럼 간사의 말이다.

『全大協과 韓總聯은 학생운동에서 노동·농민·빈민운동 등 사회활동으로 전환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投身(투신)팀」을 운영했다. 당시 主思派 운동권은 敎師로 갈 敎大와 師大 출신들을 모아 사상교육을 시키며 조직적으로 左派(좌파)교사를 양성했다. 「투신팀」은 전대협과 韓總聯의 공개조직이 아닌 「언더(지하조직)」로 활동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나타나는 全敎組 이념성향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주사파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교사들은 1999년 全敎組 합법화 이후 전면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全敎組 비판서적인 「집으로 가는 길」을 펴 낸 鄭在鶴(정재학·51) 전남 영암 삼호서중 교사는 『全敎組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운동권 출신 해직교사들이 대거

복직되면서 親北·反美 성향을 노골적으로 띠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의 경우, 解職(해직) 당했거나 未발령됐다가 金大中 정권 당시 復職(복직)됐던 韓總聯(남총련 호남조직) 운동권 출신 교사들이 全敎組를 이끌고 있다』며 『全敎組는 극단적 이념성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확대 再생산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李銖日 위원장 南民戰사건으로 10년 복역

李銖日(이수일) 全敎組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이념형 교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1978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李씨는 이듬해인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사건으로 구속돼 10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엔 全敎組 조사통계국장·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9년 복직되어 현재 서울 중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南民戰은 주범 安龍雄(안용웅) 등이 越北해 金日成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던 共產혁명조직이었다. 南民戰은 공산혁명이 이뤄지면 북한군에 지원 요청할 것을 모의했었다. 이들은 공산혁명 성공時 중앙청에 게양할붉은별이 그려진 대형 「戰線旗(전선기)」를 준비했는데, 이 깃발은 1974년 人革黨(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도예종 등 8명이 입었던 옷으로 만든 것이었다.

좌익사상범에서 전향한 소설가 김정익氏는 교도소內 南民戰 연루자들과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1989년 「囚人번호 3179」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이 책에서 金씨는 『南民戰 조직원들은 교도관 연

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 시킬 정도로 치밀했다』며 南民戰이 교도소內에서 조직을 강화시켜 1980년대 국내 좌익세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운동권 관계자들도 南民戰 잔당들은 主思派를 비롯한 1980년대 좌익세력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한다.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反美」라는 反제국주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南民戰의 투쟁노선은 1980년대 좌익세력에 그대로 수용됐었다.

▶ 全敎組 교육현장, 좌경화 惡순환 시작돼

全敎組의 親北·反美 성향 교육자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 할까?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崔恩淑(최은숙·33)씨는 『「참교육」을 명분으로 출범한 全敎組의 이념과 노선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원단체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崔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워진다』고 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康東洙(강동수·42)씨는 『욕설이 난무하는 反APEC 자료를 보면 아이들을 파렴치법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연방제 통일이니 하는 내용들을 보니 이젠 反국가사법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좌경화된다면 갈수록 사회혼란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鄭在鶴 교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全敎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시켜 학생들과 全敎組를 단절시켜야 한다. 공적자금 지원이 계속되면서 조합원 수가 줄고 있음에도 全敎組의 영향력이 줄

지 않고 있다』고 했다.

『全敎組의 이념성향은 공공연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全敎組는 아이들을 좌경화시키고 그 아이들은 대학에서 韓總聯으로, 다시 사회에서 민노총으로 키워집니다. 이처럼 좌경화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곳은 全敎組의 학습현장이지만, 그 뿐만이 되는 것은 정권입니다. 정권이 억대의 공적자금을 쥐이며 全敎組를 계속 키워 가는 한 좌경화의 악순환은 끊기 어려울 것입니다』

■ 전교조 입김에 교육정책 혼들(동아일보, 2005/11/04)



《“교원노조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아서야 정부가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데 참 걱정입니다.”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을 위해 교원단체, 특히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협상해 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비단 교원평가제뿐만 아니다. 조합원 9만5000명의 전교조가 막강한 조직력을 내세워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책 내용이 변질되거나 표류하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고, 정부도 전교조의 눈치를 살필 정도다.》

▶ 교원평가제 난항=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3개월 넘게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논의했지만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막판 회의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날 정부안대로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교사 다면평가, 학생 수업만족도 조사,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교원단체에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과 근접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전교조는 ‘합의 시행’ 조건을 내세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그 대신 전교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를 통해 학교교육활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교총이 개선하는 선에서 유지하자는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가도 학생 학부모 동료가 아니라 교사가 하고 교장 등도 투표로 뽑자고 주장 한다. 그래서 정부나 교총이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해 교원평가제를 저지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학력평가 반대=교육부는 2002년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전 학생 표집을 반대해 10%만 표집 분석했고 그나마 학교별, 지역별, 시도교육청별 비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듬해에는 학력 경쟁이 우려된다며 전체 학생의 1%만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표집 대상을 10%에서 3%로 축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학력 격차 같은 대책도 세울 것 아니냐”며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는 식의 평가는 하나마나”라고 꼬집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동=2003년 NEIS 파동으로 교육부와 전교조는 1년 넘게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참여정부 출범 이후 힘을 얻은 전교조는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총력 투쟁을 벌였다.

정부가 대폭 양보해 2006년 3월부터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만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고교는 단독 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마다 그룹 서버를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상여금 나눠 먹기=정부는 2001년부터 공무원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해 근무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교사들만은 여전히 나눠 먹기다.

첫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하려 하자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들먹이며 균등 배분을 관철시켰다. 올해의 경우 성과급 재원 3492억 원

의 90%는 균등 배분하고 10%만 차등 지급했기 때문에 성과급 차이는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 전교조, 어처구니없는 설문조사(독립신문, 2005/04/29, 김슬기
객원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통일 후에 북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북한에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에서 23일까지 약 일주일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과 분단 6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맞이 통일의식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전교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주민을 결혼 상대로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어린이들은 '북한 주민을 한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72.5%), '가까운 친구로 사귈 수 있다'(71.6%)고 답했으나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는 80.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해방과 분단 60주년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각 학교에서 계기 수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전교조의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 "초등학생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며 의아함을 나타냈다. 그 중 일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의도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결혼에 대한)개념도 안 잡힌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차라리 한일관계가 아시아에 미

칠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자”(ID:jaemisa1), “나 참, 초등학생이 무슨 현실을 아냐? 결혼이 뭔지도 모를 거다. 애들 데리고 장난치나?”(ID:dante821), “초등학생들 데리고 별 걸 다 물어보네, 결혼상대라니”(ID:choeks123)라며 아직 결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적절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어떤 7살짜리 여아들은 아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더이다”(ID:hh3461), “기자한테 물어보자, ‘회사점식식단으로 채소와 고기가 나왔다, 무얼 먹을래?’ 그리고는 직장인 70프로는 채소류는 먹지 않고 고기를 먹는다고 결정”(ID:hdh4556)이라는 등 설문문항의 부적절함을 비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일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시시껄렁한 거나 조사하고 앉았구나! 전교조는 정치적인 이슈에 고만 관심 좀 갖고 학내에 신경 좀 써라”(ID:onionman), “그 시간에 건설적으로 애들에게 산교육을 시켜라”(ID:usire7), “전교조는 할일도 없나, 이런 거 조사할 시간에 애들 공부나 시키지. 초등학생들 상대로 뭐 하는 건지…뭔가 조사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걸 조사한 전교조의 의도가 궁금하다”(ID:parkjeum)라고 말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절대로 적이 아니다, 절대로 빨갱이는 없다’라고 주입식 교육시키기 위한 명분 쌓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려! 에고! 이 나라여! 이 정부여!”(ID:sc717), “전교조, 설문조사 한다고 한다면서 은근슬쩍 주체가 어쩌니 6.25가 미국 때문이니 이런 헛소리할 게 뻔하

다”(ID:methodist522)는 등, 설문조사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북한 주민들 ‘우리도 통일 후 너네랑 결혼 안 해’”(ID:chimi753), “북한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남조선 초등학생들과 결혼 안 해’” 99퍼센트(ID:art_of_)라며 코믹한 의견을 달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지난 3월 5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사전회의에서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 ‘남북공동 통일수업’을 진행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

【부록4】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교조 고발 사례

■ 전교조의 이념편향교육이 도를 넘었습니다. (2006/01/05, unique)

제 친구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담임이 전교조 교사입니다.

그런데, 사회시간이 되면 공공연히 한나라당을 나쁘게 말하고 친미사대주의 정당이니 뭐니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방적 사상을 주입시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단지 제 친구 조카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 방침과 수업 방식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전교조 참 문제입니다. 교사도 물론 월급쟁이니까 노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라는 이름을 빌어 좌경화 교육을 합리화시키고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시키는 변질된 단체입니다.

■ 전교조 이념교육 사례 모음 (2006/01/05, unique)

- 우리 아이 교실에서 이런 일이... 제자에게 욕설 가르치는 스승도 있나!

“야 입마 테러하는 새끼들 다 조져야 할 것 아니야”

“이 촛불든 새끼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야. 까라면 까야지”

“노무현이 너 또 뭐라고 씨부리는거야?”

- 전교조 '중등용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 중에서

“(서해교전관련) 백령도 부근은 한국의 영해가 아니다”

“북한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6.25로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되었다”

- 전교조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중에서

“빨치산이었던 춘자네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 죽고, 송서방 아저씨는 인민군 부역자라고 해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 미쳐서 발가벗은 채 온 동네를 뛰어다니다가 행방불명 되었다.”

■ 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2005/01/05, adliosasia)

먼저 전교조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는 것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지혜를 낸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박근혜 총재님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용기 있는 의원과 당직자들,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교조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의 분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제가 가진 생각은 "아동학대"의 문제로 전교조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행위인 "교육"은 그 기본전제가 아

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식과 지혜로서 공인되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적인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교조가 하는 행위는 "정치·이념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의 의식화 도구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앵벌이로 이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의 여러분들께서 접근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두려움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제 마음을 전합니다.

■ 한 시대에 증인은 아직도 숨 쉬고 있다. (2006/01/07, butilee222)

교사 노동자라 칭한다. 이렇게 부르고 동료 교사 호칭도 가입한 교사에게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공·사석에서는 노동자 접장선상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호칭을 일부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부끄러워서 그런지? 비하한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그럼, 이렇게 충언해 준다.

"선비인 선생님은 그래도 양심에 마지막 보루인데 진실 되고 떳떳한 삶에 등대는 못되더라도 끗 사람과 같이 거짓 삶을 보여 주어서는 아

니 된다”고 말해준다.

본래 참 교육이란 없다. 토계선생님의 훈도교육과 토론교육은 우리 선조들에 실천교육 아니었던가요? 그런 교육이 참 교육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교사들이 주장하고 울부짖는 참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닌 듯싶다.

그 사례

1. 재단 인사에 까지 개입 및 단체행동- 동료교사 교감승진 반대투쟁
(공문탄핵 없이 교감연수 중 취소당함)
2. 동료교사 무고 고발- mbc사과방송 받아 냄 (언론중재위까지 방문 접수)
3. 충언교사에게 명예훼손 진정사건-진행 중
4. 현장실태-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는 절대하지 않음. 각종 개인, 공동체 비리 감시, 사사건건 원리·원칙고수, 실수와 잘못을 절대 시인·인정하지 않음.
5. 6·25전쟁의 이론적 배경을 다르게 보는 시각과 사고
6. 신입, 초임 교사들에게 접근하여 식구 늘리기
7.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집요한 압박과 단체가 함께 행동하는 일련에 행위들 - 업무분장관계 , 명칭, 학사관계, 행사관련 등

이 외에도 잡다한 사안들이 무지기수로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일선교사들은 푸념하고 있지만 별 다른 묘안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교 내 업무가 3~4명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된다. 교사

노동자 아닌 선생님들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승진이 눈앞에 다가 왔는지? 쳐, 자식이 있어 그런지? 맹종, 아부하는 습관이 투철해서 그런지? 부장수당이 많아 그런지? 여러 가지의 오해를 빙정거림을 받아가면서 지내는 현실.....

참으로 슬퍼지는 시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열과 정성으로 학생들에 장래와 미래를 위해 햇불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넋두리이며, 미친놈들이라 비웃음을 당할 그런 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5학년 종업식 3~4일전에도 겪고 또 겪었습니다. 학부모님들 폭력교사로 대응 고발 조치한다고 협박 받아가면서 미래에 인간됨을 나 혼자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라는 만감이 오가는 현실 말입니다.

아무쪼록 갈기갈기 찢어진 갈등의 장이 과연 언제까지 인지? 끝이 어딘지? 과연 개혁에 종말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생각컨데 25년 교직 생활이 보람 없이 끝난다 생각하니 세월과 많은 시간이 아쉬울 뿐이며, 허송세월이라니 하늘보고 소리쳐 보고 싶을 뿐이다.

■ 전교조의 실체를 잘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2006/01/10, nOnOn0)

반전·평화집회 일부 중학생들 숙제 때문에 참석 국제반전평화공동 행동의 날 행사가 4월 12일 오후 4시부터 시청 앞에서 열려 반전·평화를 외쳤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일부 중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낸 숙제 때문에 참가한 학생들이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말하는 반전과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뭣이며 배경을 취재하는 기자를 일부 대학생들이 제지하며 방해하기도 했다. 시청 앞은 무대와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임시 사회자는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자의 말이 끝나고 나서 ‘fucking usa’ ‘봄날은 간다’란 노래에 맞춰 대학생들이 춤을 추었다.

행사 공식 시작 시간인 4시가 다가옴에 따라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 시위용품을 들고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비둘기모양의 용품을 쥐고 엄마 손을 잡고 나온 꼬마도 있어 눈에 띠었다. 행사 전 “노무현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전의 참혹함을 알리는 선정적인 행위예술이 펼쳐졌다. 4시 정각이 되자 사회자가 “일명 부시 싸대기 때리기 행사를 하겠습니다”라며 분필을 나눠줬다. 부시 싸대기 때리기는 손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고 그 자리에 분필로 손 그림을 그린 뒤 부시 얼굴에 난 손자국이라고 생각하는 행사였다. 이어 임시 사회자는 “오만한 침략전쟁 미국을 규탄한다. 한국군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연단에서 제창했고, 약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구호를 따라했다.

- ▶ 촛불시위 스타 초등생 신○○군... “북한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요”

촛불시위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신○○(10·○○초교)군이 연단에 나와 부시 미 대통령이 과자 때문에 고생한다는 내용으로 풍자화한 ‘토끼야’를 개사한 ‘부시야’노래를 불렀다. 신○○군은 연단에서 “바그다

드가 미군에 의해 합락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군사적으로 이기더라도 역사에 남은 이라크 전은 많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은 더 러운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한 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연단을 내려갔다. 초등생이 이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참가했는지 알고 싶어 신○○군에게 질문을 했다.

- 이름이 뭐예요? : 신○○이고, 10살이고 ○○초등학교를 다녀요.
- 어떻게 오게 됐나요? : “전쟁반대, 효순·미선 누나 사건 해결을 위해 나왔구요. 아빠랑 같이 처음부터 촛불시위에 다녔어요.”
-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부시가 악마라 생각돼요. 죄 없는 이라크 국민들을 마구 학살하잖아요.”
- 이라크 어린이 사진 본적 있나요? : “네, 사진으로 봤어요. 끔찍하고, 미국이 전쟁을 중단했으면 해요.”
-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 “그냥 시켜서.”
- 어떻게 하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남북한이 회의도 많이 하고, 경계선을 없애면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북한 김정일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네, 같은 민족이니까, 미국이 나가면 곧바로 전쟁을 할 사람도 아니라서요.”
- 아빠가 한번이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한 적 있나요? : “북한인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숙제 때문에 참가했어요. 감상문 써내라고 했어요.

무대에서는 ‘fucking usa’와 ‘조중동 자전거 일보’를 풍자하는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 이때 반전·파병반대를 주장하는 김홍신, 김근태 의원이 도착했다. 이어 식순에 따라 묵념을 한 뒤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여자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예정된 4시에서 30분이 지나 본 행사가 시작됐다. 행사는 대회순서에 나온 대로 춤패의 반전 춤 공연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이 이어졌으며, 참가자 발언 순서에서 리○○ 한양대 명예교수는 “어느 쪽이 한반도에 위협을 일으키는 요인인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뒤 연단을 내려갔다.

반전·파병반대 집회에 유난히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회과목 숙제 때문에 왔다고 했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상당수는 숙제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 상당수가 북한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은 반전·평화행사에 참여한 중학생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다.

- 이름이 뭔가요? : “서○○(16), 박○○(15), 최○○(16)이구요, 중3 이에요.”
-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 “학교 숙제 때문에 왔어요.”
- 숙제가 어떤 건가요? : “반전시위보고 느끼기, 사회 과목이구 김** 선생님이요. 여자선생님이고 전교조예요.”
- 집회에 참석한 느낌이 어때요? : “끔찍한 전쟁이다란 생각만 들어요. 학교에서 교육 비디오 보고 반전평화비디오 보고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배웠고, 선생님은 전쟁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 교육비디오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 “교육비디오는 그 동안의 전쟁 내용과 전쟁의 참혹상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 선생님이 혹시 북한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주셨나요? : “그렇게 나쁜 감정은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우린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 한다고 그런 좋은 얘기만 해 주세요.”
-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냥 통일이 됐으면 해요. 한마디로 no war !”
- 학교에서 북한의 인권 및 실상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요? : “가난하게 산다고 배웠고,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폴러챈 의사에 대해 들은 적 있나요? : “잘 몰라요.”

▶ “서명 관련 숙제 많아 바빠요” 기자에게도 서명 부탁

기자가 취재하던 중 여중생들은 서명용지에 서명하기를 부탁했고, 어디서 이런 서명을 해오라 했냐고 물으니까, 이 역시 학교 숙제라며 용지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주는 서명과제는 주제별로 다양하다면서 요즘은 서명 받느라고 바쁘다고 했다. 서명용지를 가져가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서명을 받아 가면 학교에서 모은 다음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100만인 국민서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용지하단에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이라고 쓰여 있었다.

▶ 유도심문 하는 거 아닙니까?...취재하지 말아요. 물러가라

기자가 취재하던 중 몇몇 집회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만나보는 중에 기자 뒤쪽에 머물던 대학생들은 앞서 취재를 마친 여중생들을 통해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기자인지 물어보라거나 기자가 여중생들에게 나눠준 명함을 가져간 후 “취재하지 말아요,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거나 취재 중인 남학생 뒤에 와서 취재 내용을 엿들으며 “유도심문 하는 거 아닙니까?”란 말을 하면서 취재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기자에게 “언제 나가요? 꼭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고, “어느 대학교 학생들인가요?”란 기자의 질문에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다 한 명이 “서울대학교요”라고 말했다.

이날 반전·평화행사에 참여한 영화배우 정○○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며 “반전·평화는 꼭 지켜져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집회도중 무대 바로 앞에 앉은 참여자들은 기자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안보여, 기자들 비켜!”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은 노래와 구호에 맞춰 반전·평화를 더 큰소리로 외쳤으며 이후 광화문으로 이동하려던 시위대는 경찰의 강력한 저지를 받아 몸싸움을 벌인 후 교보문고 앞으로 채집결한 뒤 정리 집회를 갖고 밤 9시경 모든 행사를 마쳤다.

■ 어떤 대책도 없는 일반시민 (2006/01/13, jsyo5o)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 대계란 말로도 하곤 하지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거나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교조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교육은 당연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겸증은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례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머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가치가 언제인가부터 하루아침에 땅으로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가치를 따지고 나왔죠.. 머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경우에 결혼 1순위가 선생님이라는 말까지도 공공연히 하고들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보다는 사회에서의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되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서 얼마정도의 나이가 되면 졸업하고,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아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취직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되다보니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마도 경제의 순환에 따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교조가 생긴 이후에 교육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교육자들끼리 싸우고, 그 이전의 교육은 전인교육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턴

전인교육이네 하면서 시행되고 있던 교육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렇다고 촌지가 없어졌나요? 아마도 요즘은 더 심할까요? 아니면 학교폭력이 많이 시정되었나요? 음..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교육을 못시키나요..

학생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교육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대한 가치를 들고 나온 것은 전교조가 시작인데 왜 사학법반대 투쟁이 이념취향이라고 비판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한 이치이기에 너무 어이가 없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도 될 것이고,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북한의 경우는 왜 새로운 구성원들이 자라고 있는데도 체제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없을까요? 참으로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체제의 교육이 그만큼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받고 자라나는 구성원들은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힘들죠.. 이상하게도 나이 들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도 없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념이 자유 민주주의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

지만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에서 그 이념에 합당하지 않은 편향적인 이념을 담아 자라라는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 교육을 시키는 당사자의 이념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교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존재하고 그 가치가 살아 있는 이념에 반기를 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 교육 - 이해찬 - 전교조? (2006/01/13, osss49)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위인이다.

그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자인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자는 정도를 걷는다.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자는 사고 또한 비정상적으로, 매사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며 우발적이다.

그 사례가 하루아침에 교원 정년단축으로 학교를 황폐화 시켰다.

현재 농어촌의 교사 현황을 살펴보라.

교사 부족으로 교육 대란이 일어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중초교사를 비롯하여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가사에 종사하다가 초임발령을 받은 자를 비롯하여 10 ~30년을 실업자 또는 자영업, 타 직장에서 정년을 하고 학교에 들어온 자가 전체 교사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도시권에 사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농어촌 대부분의 학교는 모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자녀를 노령의 초보운전자, 면허취소 혹은 정지되었다가 복직한
자들에게 교육을 맡긴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까?

학교 교육에 격세지감을 느낀 그들은 자기의 방호벽을 찾아간 곳이
전교조란 걸 알고 있는가?

이 전장관이 합법화시킨 전교조?

전교조가 교육혁신과 현장개선 발전에 일조한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의 초심이 흐려지고 빗나간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교조도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진짜 참교육을 위한 참신한 교육자이다.

두 번째는 체면상 어쩔 수없이 가입하여 눈치만 보는 중도자이고

세 번째는 교감 포기자, 무능력자, 문제교사, 불평불만 안일무사 주의자들이다.

첫 번째 전교조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선봉장이 되어 교육의 지팡이로 활동하며 봉직하고 있다. 문제는 세 번째 해당 조합원들이다. 이들이 학교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관? 학생들에 대한 사랑 열정? 자질?

초음파검사에서 부터 종합 진찰을 해서 검진 결과를 받아보자.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 짹쓸이 식 조합원 확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조합원의 자질들을 진단해 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다.

첫 번째 조합원들의 사고에서 나온 정책들 이라면 국민 누가 부정하겠는가?

전교조를 부정하는 시각의 주류는 세 번째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이다수이기 때문에 전교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한풀이 짹쓸이 식, 한탕주의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 정책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사학재단, 교장선출직이다.

이 두 이슈의 공통점은 교장임용이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교원 승진제를 개악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의 대변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보직 선출제를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최순영의원이 입법 발의한 교장 보직 선출제는 현재의 교장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공모선출, 자체 선출 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경력 5년 이상의 초중등 1,2급 정교사, 1,2급 보건교사, 1,2급 사서교사면 교장으로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보직 선출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방식과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장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의 절차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교장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후보를 복수 추천하고, 학운위가 그 중 1인을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의원이 교장 공모제를 추진 중에 있다.

교육개혁이란 무엇인가?

교육개혁이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바꾸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무자격자를 포함한 교장 공모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이 개혁된다는 논리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입법기관의 의원들이 교육을 보는 견해가 이 정도라면 우리 교육이 나갈 길은 어디인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교장은 학교교육의 가장 핵심인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학활동을 비롯하여 교육활동과 지원행정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전문직이다. 누구나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경험과 학식과 연륜이 필수이다. 교장이 되기 위해 교사, 부장교사, 교감을 거쳐 3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얻은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갖고 교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한 교육활동들도 있다.

그런데 무자격자나 5년 경력 이상이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

동네 이장을 뽑더라도 그 사람의 경력과 인격과 능력을 본다.

하물며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을 무자격자나 5년 이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도 없는 초보운전자에게 승객을 태우고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육은 방법이지 수단이 아니다.

교장을 교내 장학자로 보지 않고 관리쪽으로 보는 견해는 교육을 수단으로 보는 무모한 행위다. 이와 같이 교육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인사들 때문에 교육정책이 용두사미 조변석개가 되는 정책들이 난무한다.

지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게 물어보라.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교장을 초보자나 무자격자에게 맡겨도 되는 가를.....

그리고 이런 발상을 하는 인사들의 자녀는 현재 재학 중인가 아니면 졸업을 했는가를 묻고 싶다.

교장 자격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보완해서 고매한 인격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춰야지 문호를 개방하여 아무나 학교교육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교육을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교육,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21c를 주도해 나갈 인재육성을 초보자나 무자격자에게 맡겨 초래될 시행착오가 강 건너 불 보듯 자명한데 그래도 좋단 말인가? 교육의 시행착오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의 교육회복은 어떻게 보상하며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교원평가제에 놀란 전교조 (2006/01/25, unique)

전교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일이다. 지금까지 전교조들은 학생들 비위맞추기 위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두발자율화, 교복 자유화, 흡연학생 처벌반대 등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거기에는 공부가 싫은 학생들 비위 맞추기 위해 공부보다 특기적성 교육이 참교육이라 떠들어댔다. 대학까지 평준화 주장하며 서울대 없애기, 모의고사 폐지 등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부실하게 교육시킨 사실이 드러날 일은 모조리 비교육적이라며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심지어 자기들의 태만이 드러날 학급일지, 출근부 없애기 투쟁을 벌여 학교장을 무력화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나이든 원로교사에게 호봉이 높아 봉급을 많이 받으니 수업시간을 더하라고 하는 인간들이다. 30대 젊은 전교조 교사가 자기는 주당 20시간을 맡고 60대 원로교사에게 24시간을 주며 돈 많이 받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수업이나 많이 하라고 하는 패륜 집단이다.

한 예로 전교조 담임이 1년 내내 지각하고 종례도 않고 일찍 귀가하

고 학급을 엉망으로 만들어 지진아반이라는 별명을 붙게 했다. 그리고 신 학년이 되어 3학년 담임 안 주었다고 교장실에 들어가 교장한테 대들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담임을 만났다면 학교 포기하고 학원으로 보낸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다. 선진국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교사평가제를 도입해서 교단의 불량교사 전교조를 퇴출시키는 길만이 교육이 사는 길이다. 전교조 교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교원평가다.

불량교사들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고 그 전교조의 중심에 대통령 교육수석과 이해찬 총리가 있는 것이다.

- '전교조의 실체를 고발한다' -

자유시민연대 자료집 中

【부록5】 전교조 교육 실태에 관한 그림 자료

1. 전교조 교사들이 6.25전쟁을 통일 전쟁이었다고 가르치는 모습



2. 6.25 민간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습



3. 김일성 일대기 소개



4. 학교를 위협하는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식/보도자료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I) 도움말(H)

Google Search 1281 blocked Check AutoLink AutoFill Options

뒤로 뒤로 이동 검색 즐겨찾기 이동 연결

주소(D)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2266&page=60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화일가입 조합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커뮤니티 전교조일정 전교조소개 시각장애인용 바로가기

위원회/기구 본부/지부

공지사항 소식/보도자료 일정 전교조 안내 지부 소식/보도자료

하위메뉴

공지사항 소식/보도자료 일정 지부 소식/보도자료

소식/보도자료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05-02-14	조회수	209	번호	2266
-----	-----	-----	------------	-----	-----	----	------

첨부파일 북한_인권_국제회의를_즉각_중단하라.hwp(16.0 KB)

[성명서]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서울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 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오는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강대 미나시오관에서 열리고 있다.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조선일보와 '미국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후원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 홍성필)과 각국 인권단체들이 주최하는 회의로 올해 6회를 맞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국립 민주주의 기금과 조선일보는 지난 5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북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해왔으며, 올해 2월 중순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6회째 서울에서 기획하면서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작년 미 의회에서 북 인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정부가 인적 물적자원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상,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기금인 NED(전국민주주의기금)의 200만 달러의 지원으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이하 국제회의)가 개최된 14일 오전, 회의 개최장소인 서강대 미나시오관 앞에서 국제회의를 규탄하는 각계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주도로 개최되는 순수 민간차원의 회의인 듯하지만 첫 회 때부터 미국 정

인터넷

시작 전교조관련 Adobe Photoshop 전국교직원노동조... 오후 4:36

